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 II. 트레이드 GPS ..... 27

1. 프랑스 - 광케이블 ..... 28
2. 셋톱박스 ..... 31
3. Ex-Briefing ..... 35

## III. 부록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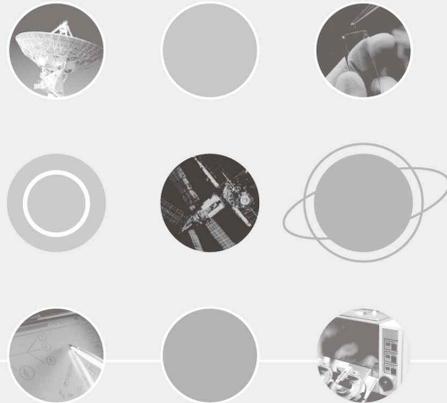
1. ICT 생산 통계 ..... 39
2. 2019년 5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40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47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3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54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19.5월 ICT 수출은 143.1억 달러(△22.6%), 수입 96.8억 달러(10.8%↑)를 기록
  - (수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3대 주력 품목 감소로 전년 동월대비 22.6% 감소돼 7개월 연속 하락('18.11월 △1.7%→'19.1월 △18.2%→3월 △16.3%→5월 △22.6%)
    - 품목별로는 D-TV가 급증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부진했으며 국가별로는 일본·베트남이 증가했으나 중국(홍콩포함)·미국·EU 등이 감소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76.6 (△30.0)	16.3 (△21.5)	9.3 (△33.9)	3.1 (158.8)	7.0 (△25.3)	143.1 (△22.6)
중국(홍콩)	48.6 (△35.3)	9.7 (△23.9)	1.7 (△48.5)	0.3 (209.3)	3.4 (△23.7)	71.2 (△31.5)
미국	5.2 (8.3)	0.1 (△39.2)	2.7 (△52.6)	0.1 (10.3)	1.5 (△22.4)	14.8 (△15.5)
일본	1.2 (△7.6)	0.3 (68.6)	0.1 (△21.0)	0.1 (△38.9)	0.3 (6.2)	3.7 (3.5)
EU	1.9 (△14.0)	0.4 (△54.0)	0.7 (△41.2)	0.2 (138.3)	0.8 (△33.5)	8.5 (△16.0)
베트남	7.6 (△11.6)	4.8 (3.0)	2.5 (15.9)	0.2 (330.8)	0.1 (23.9)	19.1 (1.6)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10.8% 증가한 9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컴퓨터 및 주변기기(8.5억 달러, △24.1%), 디스플레이(3.6억 달러, △47.0%)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45.9억 달러, 34.1%↑), 휴대폰(7.5억 달러, 7.3%↑)이 늘어나며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성장
- (무역수지) 중국(홍콩포함, 33.4억 달러)·베트남(12.4억 달러)·미국(7.7억 달러)·EU(3.3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46.3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19년		2018년	
		5월P	1~5월P	5월	1~5월
수출	전체 산업	459.1 (△9.4)	2,274.1 (△7.4)	506.9 (12.8)	2,455.9 (7.8)
	ICT	143.1 (△22.6)	724.4 (△17.5)	185.0 (20.1)	878.4 (17.2)
수입	전체 산업	436.4 (△1.9)	2,119.1 (△3.9)	444.6 (13.2)	2,205.8 (13.9)
	ICT	96.8 (10.8)	450.5 (3.2)	87.4 (9.0)	436.4 (10.0)
무역수지	전체 산업	22.7	155.0	62.3	250.1
	ICT	46.3	273.9	97.6	441.9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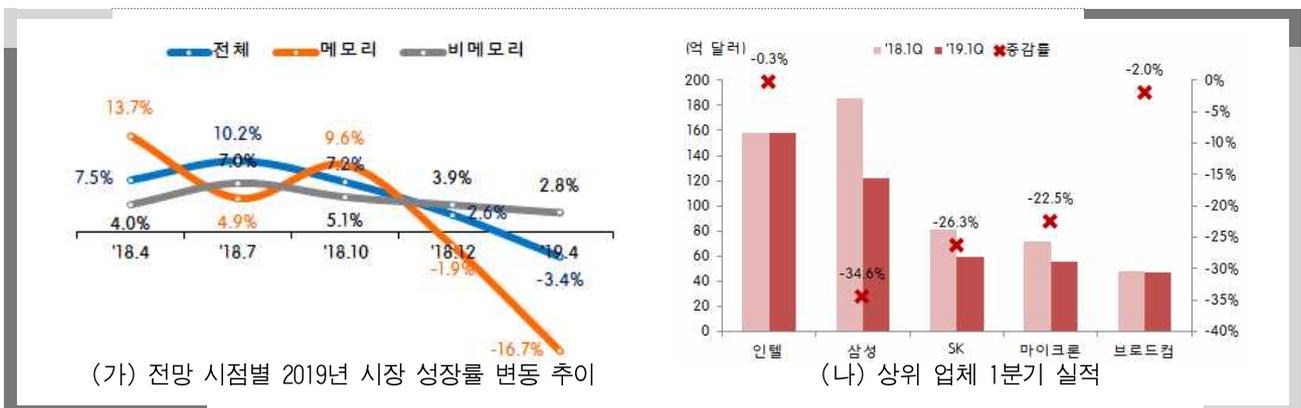
## 2 반도체

### 1) 수출 환경

#### □ 반도체 시장 전망은 메모리 부진으로 하향조정, 1분기 메모리 업체 실적도 급감

- (시장 전망) '19년 비메모리(2,537억 달러, 2.8%↑) 성장이 지속되나 메모리(1,355억 달러, △16.7%)가 급감하면서 전체 시장은 4,584억 달러(△3.4%)로 하락세 전망(Gartner, '19.4월)
  - ※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추이(% , Gartner, '19.4월) : ('17) 21.9↑ → ('18) 12.5↑ → ('19) △3.4
  - 메모리 수요 감소 및 '18년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9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19.4월 전망치 기준으로 3%대의 역성장 예상
  - 특히 메모리 시장은 '18.4월 13.7% 성장을 전망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되면서 '19.4월 16.7% 하락으로 하향조정('18.12월 대비 14.9%p 감소된 전망치)
- ('19.1분기) 상위 업체 대부분의 실적이 감소했으며 메모리 부진의 여파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중심의 업체는 두 자릿수 하락세 관측(IHS마켓, '19.5월)
  -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방산업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로 인한 메모리 가격 폭락으로 실적이 감소하면서 1,011.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감소폭은 '18.4분기 △1.9%→'19.1분기 △12.9%로 확대
  - 업체별로는 비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인텔(메모리 매출 비중 6%)이 메모리 불황 여파를 피해 0.3% 감소에 그치며 158억 달러로 1위를 지속
  -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 비중이 높아 전년 동기대비 34.6% 하락한 121.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텔과의 점유율 격차를 확대('18.4분기 2.2%p→'19.1분기 3.6%p로 확대)
  -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59.6억 달러, △26.3%)·마이크론(55.8억 달러, △22.5%)도 동반 부진

그림 1-1 | 전망 시점별 성장률 변동 및 상위 5개 업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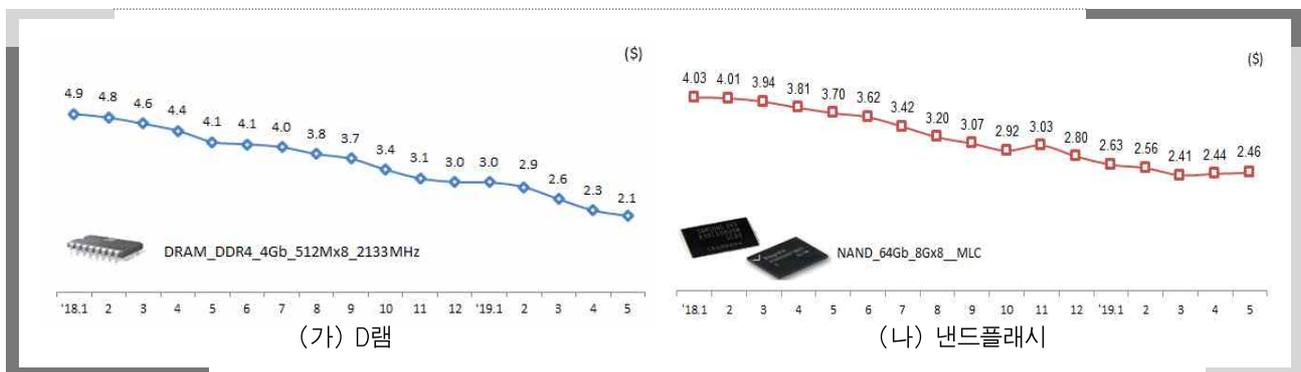


자료 : Gartner, 가로축 시점 기준 / IHS마켓, 2019.5.

## □ (가격 추이) D램은 서버·모바일 등 수요 부진으로 하락 지속, 반면 낸드플래시는 반등

- **(D램)** 계절적 비수기 영향과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른 높은 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서버 및 PC용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은 2달러 수준으로 하락
  - ※ D램 공급초과율 추이(% , Gartner, 2019.3.) : ('18→'19) 100.3→101.9, ('19.2Q→3Q) 103.1→101.9
-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에 따라 모바일과 SSD 등 서버용 낸드플래시 수요가 안정되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공급 조정 등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단가는 소폭 상승
  - ※ 낸드플래시 공급초과율 추이(% , Gartner, 2019.4.) : ('18→'19) 102.2→101.2, ('19.2Q→3Q) 102.8→100.3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2019.6, 현물가격 기준

## □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체의 영향에 주목

-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화웨이 제재 명령을 시행하면서 미국 기업<sup>2)</sup>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
  - 5.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발동 하루만인 5.16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의 자회사를 제재 리스트<sup>3)</sup>에 추가
  - 이에 따라 구글(안드로이드OS)·인텔(CPU)·마이크론(D램)·퀄컴(모바일 AP)·MS(윈도OS)·브로드컴(데이터센터 칩)·ARM<sup>4)</sup>(반도체 설계 및 기술) 등은 화웨이와 거래가 제한되며, 기술 계약도 해지
    - ※ 화웨이는 '18년 총 700억 달러의 부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미국 기업 제품은 110억 달러
  -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의 약 60% 이상에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칩셋(AP + Modem)을 채용 중. 하이실리콘은 ARM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어, ARM 협력 중단은 곧 반도체 생산 제약을 의미

2) 美정부 규제 대상 업체 : 1. 미국 회사, 2. 미국 부품 및 기술 가치가 제품 원가의 25% 이상인 회사, 3. 미국에 R&D 센터 보유 업체  
 3)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해당 업체와 거래 불가  
 4) ARM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이나 미국에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



-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면서, 인텔·퀄컴 등은 정부에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최근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영향을 반영하여 올해 전방산업 출하량 증가율이 기존 전망치 대비 하향조정 되면서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스마트폰 시장 2위인 화웨이에 제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마이크론·WD는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또한 브로드컴은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비롯한 무역전쟁 여파로 '19년 매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조정('19.3월 245억 달러 → 6월 225억 달러, 20억 달러 축소)
  - 이에 인텔·퀄컴 등 미국 업체들은 화웨이에 공급중인 제품 대부분이 보안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거래 금지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국내 업체는 미·중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화웨이 부재에 따른 수혜도 예상
  -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 거래 제한 동참을 요청하는 반면 중국은 MS·텔·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불러 미국에 협조 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국내 업체는 진퇴양난에 직면
    - ※ 국내 업체는 중국 현지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가동(삼성전자 : 시안-낸드플래시, 쑤저우-반도체 후공정, SK하이닉스 : 우시-D램, 충칭-낸드플래시 후공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가 우려되는 상황
  - 한편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전방산업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 회복 지연과 화웨이 공급분 비중 축소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 중 화웨이 비중은 5~10%, SK는 10~15%) 등으로 부정적 영향 예상
  - 그러나 일각에서는 ① 스마트폰 등 세트 시장에서의 국내 제품이 화웨이를 대체하며 국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 ②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경우 분쟁에 따른 위험 축소를 위해 글로벌 세트 제품에 한국 반도체 탑재가 확대될 것 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내 업계에 반사이익도 기대
    - ※ 화웨이 제재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증가(연간 3,690만 대)가 예상되면서 D램 7.9억 달러, 낸드플래시 3.0억 달러, 모바일AP 6.7억 달러 등 모바일향 신규 반도체 매출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이투자증권, '19.6월)

표 1-3 | 화웨이 스마트폰용 주요 모바일 반도체 및 삼성전자 연간 메모리 수혜 추정

주요 Mobile 반도체	화웨이 P10
AP + Modem SoC	HiSilicon Kirin 970 + Hi3670 + Micron 4GB LPDDR4
RF Transceiver	HiSilicon Hi6363
Power Management IC	HiSilicon Hi6421, Hi6422, Hi6423
Power Amplifiers and FrontEnds	Qorvo RF5228B, Qorvo QM56022, Skyworks SKY85203
NFC	NXP PN548
GNSS	Broadcom BCM47531
Audio Codec	HiSilicon Hi6403, NXP TFA9872
Wireless Charging Receiver	HiSilicon Hi6523, TI BQ25870

(가) 화웨이 스마트폰용 주요 모바일 반도체

구분	D램	낸드플래시
평균 탑재량	3.9GB	107.3GB
가격	5.5\$/GB	0.1\$/GB
수혜 추정액	7.9억 달러	3.0억 달러

주) 화웨이 제재로 인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연간 증가량 3,690만 대에 따른 추정치

(나)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1년간 수혜 추정

자료 : IHS마켓, Counterpoint, Dramexchange, 하이투자증권 재인용, 2019.6.

## 2) 수출 동향

###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동반 감소하면서 70억 달러대로 하락

- **(품목별)** '19.5월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단가 하락, 시스템 반도체 수요 둔화, 기저효과 등으로 76.6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대비 30.0% 감소
  - (메모리 반도체 : 52.7억 달러, △35.8%) 서버·스마트폰 등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감소로 D램 및 복합부품직접회로(MCOs)·메모리MCP·낸드플래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줄어들며 6개월 연속 하락
  - (시스템 반도체 : 18.4억 달러, △13.1%) 패키징·파운드리·팹리스 물량 축소로 7개월 연속 하락세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 및 국내 세트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수출이 감소
  - 중국(홍콩포함, 48.6억 달러, △35.3%)은 D램·MCOs·메모리MCP 등 메모리 반도체(△24.1%) 및 시스템 반도체 수출 감소(△13.9%) 등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 베트남(7.6억 달러, △11.6%)은 D램을 제외한 메모리MCP·MCOs 등 메모리(△12.7%)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6.5%) 수출이 동반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반전

**표 1-4 |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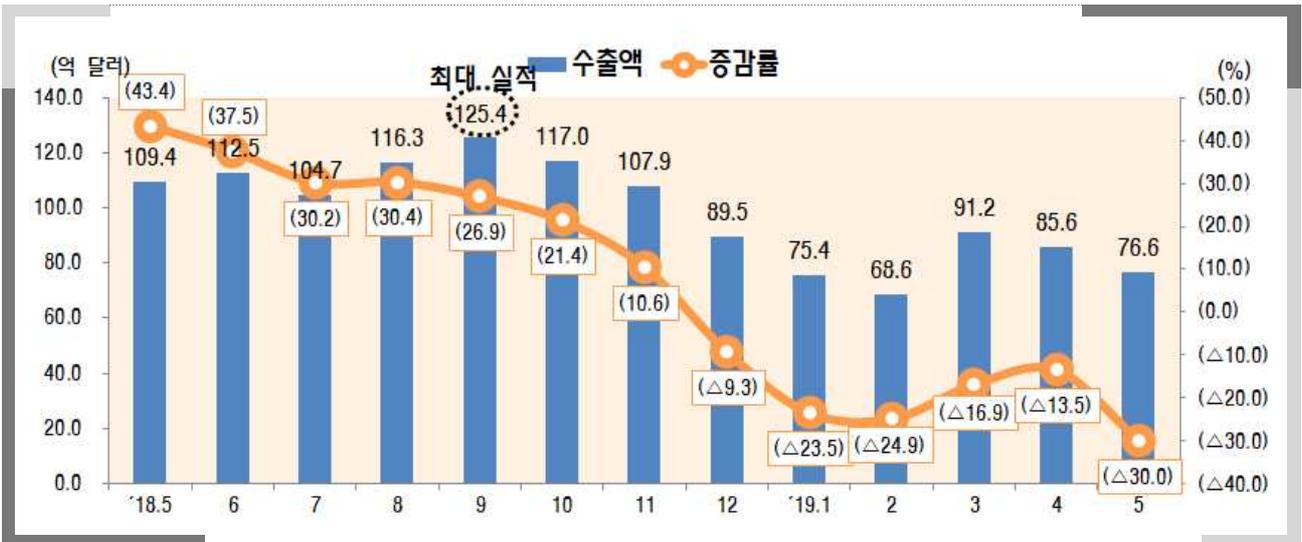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5	6	7	8	9	10	11	12	'19.1	2	3	4	5
반도체	109.4 (43.4)	112.5 (37.5)	104.7 (30.2)	116.3 (30.4)	125.4 (26.9)	117.0 (21.4)	107.9 (10.6)	89.5 (△9.3)	75.4 (△23.5)	68.6 (△24.9)	91.2 (△16.9)	85.6 (△13.5)	76.6 (△30.0)
메모리	82.1 (67.7)	85.0 (54.2)	75.3 (45.3)	86.0 (42.5)	96.2 (44.5)	87.7 (26.5)	80.5 (16.9)	63.8 (△10.3)	47.6 (△30.5)	45.1 (△31.1)	65.4 (△18.6)	58.6 (△16.2)	52.7 (△35.8)
D램	40.7 (73.5)	41.4 (71.0)	38.7 (52.4)	41.3 (51.6)	44.9 (54.3)	42.6 (37.0)	42.0 (40.7)	32.4 (1.1)	24.3 (△22.1)	21.0 (△29.9)	29.0 (△19.9)	27.9 (△24.7)	23.6 (△42.1)
낸드	7.0 (131.1)	7.0 (129.7)	5.7 (55.0)	6.0 (17.7)	7.4 (29.3)	7.1 (35.5)	6.6 (32.1)	6.2 (25.3)	4.1 (△26.1)	3.7 (△41.3)	5.9 (△16.7)	6.7 (17.3)	4.7 (△32.9)
MCP	17.3 (20.2)	17.6 (△10.5)	13.4 (△19.9)	18.2 (△6.6)	20.1 (△18.8)	18.6 (△30.9)	18.4 (△32.2)	14.5 (△46.7)	12.5 (△49.8)	11.9 (△45.5)	19.0 (△32.4)	15.9 (△18.7)	14.6 (△15.4)
시스템 반도체	21.2 (△2.0)	21.0 (3.4)	23.1 (2.0)	23.7 (5.4)	22.9 (△9.3)	23.0 (8.2)	21.7 (△3.5)	20.3 (△2.9)	21.6 (△6.3)	18.7 (△6.0)	20.0 (△9.8)	21.2 (△6.6)	18.4 (△13.1)
개별 소자	1.3 (27.3)	1.3 (20.5)	1.3 (27.1)	1.4 (15.6)	1.2 (△4.1)	1.4 (22.8)	1.3 (3.8)	1.2 (△7.0)	1.4 (2.6)	1.1 (△7.1)	1.3 (△2.2)	1.3 (2.2)	1.3 (1.0)
광전 소자	3.3 (△10.1)	3.6 (△14.3)	3.4 (△11.8)	3.8 (△11.2)	3.7 (△21.5)	3.6 (△3.8)	3.0 (△26.1)	2.7 (△37.5)	3.3 (△24.1)	2.5 (△33.2)	3.2 (△28.1)	3.2 (△10.4)	3.2 (△4.1)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5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5월 누적		
1	중국	522.1	32.7	40.7	중국	27.9	-37.9	36.4	152.8	-27.0	38.5	
2	홍콩	335.7	24.0	26.2	홍콩	20.7	-31.4	27.0	94.5	-30.1	23.8	
3	베트남	109.6	18.7	8.6	베트남	7.6	-11.6	9.9	47.8	-1.0	12.0	
4	미국	68.8	54.8	5.4	미국	5.2	8.3	6.8	25.7	41.8	6.5	
5	대만	65.5	48.8	5.1	대만	3.2	-38.6	4.2	16.4	-23.0	4.1	
6	필리핀	55.1	29.2	4.3	필리핀	2.5	-46.8	3.3	13.6	-40.2	3.4	
7	싱가포르	28.3	-10.2	2.2	싱가포르	2.0	-14.3	2.7	10.4	-15.3	2.6	
8	일본	15.0	3.9	1.2	인도	1.3	15.0	1.7	6.2	40.4	1.6	
9	독일	13.8	36.8	1.1	일본	1.2	-7.6	1.6	5.3	-18.1	1.3	
10	인도	12.8	105.4	1.0	브라질	1.1	-14.5	1.4	4.0	-30.4	1.0	

자료 : IITP, KTSPI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대형 패널 시장, 지속적인 불황 속에 BOE 등은 성장하며 국내 업체를 위협

- (시장 규모 및 전망) '19.1분기 대형 패널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한 135억 달러, 출하량은 0.1% 줄어든 1억 8,288만 대를 기록하며 하락세 관측(IHS, '19.5월)
  - 2분기도 중국의 10.5세대 공장 가동 계획('19.하반기)으로 패널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고 세트 업체의 재고 포화 등에 따른 수요도 감소해 시장 냉기류가 이어질 전망
  - 대형 패널 시장의 업체별 점유율('19.1분기, 매출액 기준)은 LG디스플레이(28.7%), BOE(15.1%) AUO(14.2%), 이노룩스(12.8%), 삼성디스플레이(10.0%) 등이 상위권 차지(IHS, '19.5월)
- (경쟁 현황) BOE 등 중국 업체들의 출하량 기준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매출 기준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 '19.1분기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대만(33.4%→32.1%), 한국(27.9%→26.1%), 일본(5.7%→4.6%)이 하락세인 반면 중국(33.0%→37.2%)만 홀로 성장세 관측. 중국은 3분기 연속 시장 1위
  - 매출 기준으로 중국(37.4억 달러, 점유율 27.7%)은 한국(52.3억 달러, 점유율 38.7%)에 못 미쳤지만 한국이 △11.5% 역성장 한 반면 중국은 27.8% 증가하며 점유율 격차(21.2%p→11.1%p)를 크게 축소
  - 이 처럼 중국이 급격히 추격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 제고(폴더블·투명 OLED 등), 수요처 다변화(노트북 등), 신제품 양산 등의 전략을 전개하며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그림 1-4 |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추이 및 1분기 업체별 점유율(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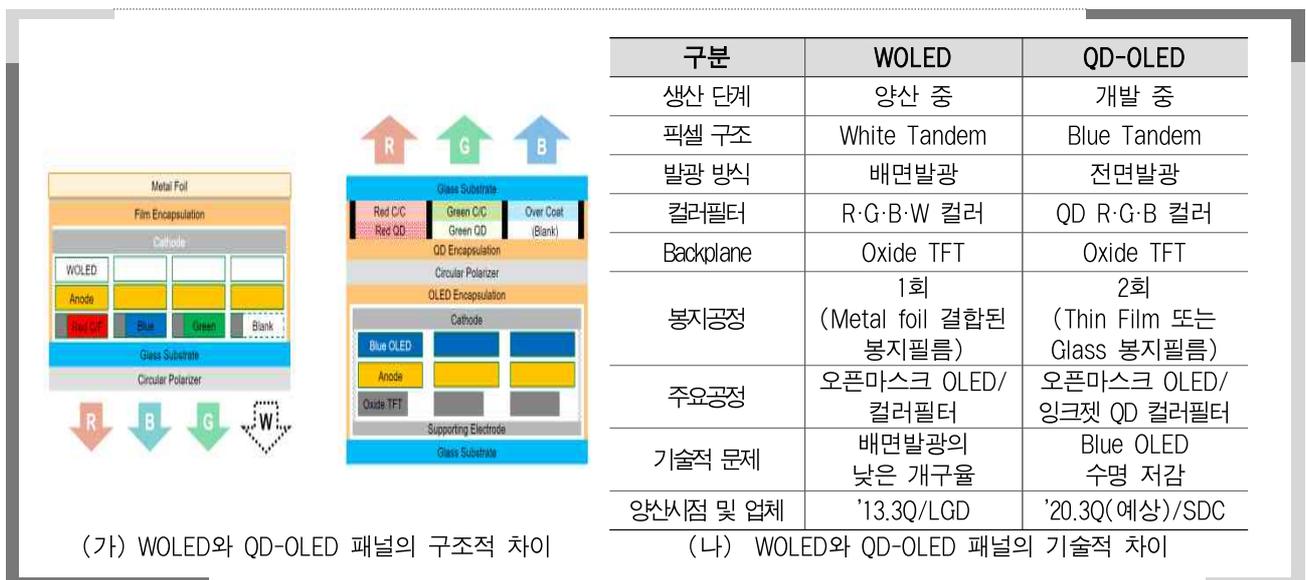


자료 : IHS, 2019.5.

□ 침체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업체들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OLED 사업 확대에 집중

- 제조사들의 OLED 생산 면적(가동시점 기준)은 '19년 3,490만㎡에서 '23년 6,850만㎡로 늘어날 전망(유비리서치)
  - 美 산호세에서 개최된 'SID 디스플레이 위크' 사전 행사(5.13일)에서 핵심 기술인 OLED가 모니터, 스마트폰, 자동차, 커머셜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을 이끌어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업체는 LCD를 탈피해 수익성 높은 OLED 구조로 전환하면서 우위를 유지할 전망
  -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전환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8K, 전장용·투명용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OLED가 필수로 대두돼 올 하반기 내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8세대 OLED 증착기를 '19.4분기 내 공급받아 파일럿 라인(L8)에 장착할 예정
  - 또한 현재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트북(15.6형)용 UHD OLED 디스플레이를 양산(1.23일)중으로 노트북 시장서도 OLED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중소형 패널의 절대 강자 위상을 이어갈 계획
  - (LG디스플레이) LCD 모듈을 생산하는 폴란드 법인을 청산(5.22일)하고 3분기부터 8.5세대 광저우 라인을 본격 가동하면서 OLED 중심 사업구조 재편을 가속화 할 전망
    - ※ LG는 P8라인(과주)을 WOLED(White OLED)로 전환('20년 예상)하는 등 OLED 생산라인을 지속 확대할 예정
- 중국 정부는 '20년까지 패널 자급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하나금융투자)
  - 이미 TV 패널은 목표치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모바일 OLED 부문은 20% 내외에 불과해 하반기 라인 가동률 상승 및 신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

그림 1-5 | WOLED와 QD-OLED 패널의 구조적 및 기술적 차이



자료 : 삼성디스플레이, 메리츠증권

## 2) 수출 동향

### □ 디스플레이 패널은 LCD 수출 약세가 지속되면서 21.5% 감소한 16.3억 달러 기록

- **(품목별)** OLED 패널과 부분품 수출은 호조세지만 LCD는 中の 가격 공세 영향으로 침체가 이어져 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20억 달러 대를 하회
  - (LCD 패널 : 7.0억 달러,  $\Delta 40.4\%$ ) 고인치대 패널 가격의 낙폭 확대, 저인치대 패널 가격의 하락세 전환에 LG디스플레이의 폴란드 법인 청산 영향이 맞물리며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
  - (OLED 패널 : 6.2억 달러, 3.7% $\uparrow$ ) 프리미엄 TV, 스마트 워치 등의 수요 증가로 2개월 연속 상승세
  - (패널 부분품 : 3.1억 달러, 2.6% $\uparrow$ ) 주요 해외 생산 기지인 중국(홍콩포함)·베트남·헝가리 등에서의 부분품 수요 확대에 오름세 관측
- **(지역별)** 베트남 일본은 상승세나 주요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을 비롯한 멕시코 등은 부진 지속
  - 중국(홍콩포함, 9.7억 달러,  $\Delta 23.9\%$ )은 부분품(1.9억 달러, 0.9% $\uparrow$ )이 소폭 상승했으나 현지 업체와의 경쟁 지속에 따른 LCD 패널(5.0억 달러,  $\Delta 36.6\%$ )의 악화로 하락세 여전
  - 베트남(4.8억 달러, 3.0% $\uparrow$ )은 LCD 패널(1.4억 달러,  $\Delta 26.9\%$ )의 하락폭(전월 대비 11.3%p)이 감소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OLED(2.8억 달러, 27.2% $\uparrow$ ) 수요가 확대돼 상승 반전
  - 일본(0.3억 달러, 68.6% $\uparrow$ ) 또한 LCD 패널(0.02억 달러,  $\Delta 30.9\%$ )이 감소세지만 OLED 패널(0.1억 달러, 48.1% $\uparrow$ )·부분품(0.1억 달러, 169.8% $\uparrow$ )의 수출 확대에 상승 반전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8.5	6	7	8	9	10	11	12	'19.1	2	3	4	5
패널	20.7 ( $\Delta 17.7$ )	21.7 ( $\Delta 8.3$ )	25.2 (3.1)	29.7 (6.0)	25.6 ( $\Delta 10.7$ )	26.2 ( $\Delta 3.7$ )	22.8 ( $\Delta 11.3$ )	21.3 ( $\Delta 6.5$ )	19.9 ( $\Delta 13.0$ )	15.6 ( $\Delta 17.2$ )	17.1 ( $\Delta 22.4$ )	17.2 ( $\Delta 16.2$ )	16.3 ( $\Delta 21.5$ )
LCD	11.7 ( $\Delta 22.0$ )	11.7 ( $\Delta 18.9$ )	12.4 ( $\Delta 14.9$ )	12.9 ( $\Delta 19.0$ )	11.6 ( $\Delta 21.8$ )	11.5 ( $\Delta 10.9$ )	9.6 ( $\Delta 30.5$ )	9.6 ( $\Delta 20.1$ )	8.6 ( $\Delta 31.6$ )	6.7 ( $\Delta 35.6$ )	7.3 ( $\Delta 37.0$ )	7.0 ( $\Delta 35.9$ )	7.0 ( $\Delta 40.4$ )
OLED	5.9 ( $\Delta 17.0$ )	7.0 (14.7)	9.6 (45.5)	13.2 (53.8)	10.8 (6.7)	11.0 ( $\Delta 2.2$ )	10.0 (13.4)	8.7 (12.6)	8.0 (12.8)	6.2 (7.9)	6.9 ( $\Delta 6.9$ )	7.2 (8.1)	6.2 (3.7)
부분품	3.0 (2.8)	3.0 ( $\Delta 4.3$ )	3.2 ( $\Delta 2.4$ )	3.6 (3.4)	3.3 ( $\Delta 14.0$ )	3.7 (20.6)	3.2 (3.6)	3.0 ( $\Delta 0.8$ )	3.3 (2.8)	2.7 ( $\Delta 0.5$ )	2.9 ( $\Delta 4.2$ )	3.1 (1.9)	3.1 (2.6)

자료 : IITP, KTSPi



그림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7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2019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5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35.1	-20.9	48.7	중국	9.2	-24.2	56.8	45.9	-18.5	53.3	
2	베트남	95.0	22.3	34.2	베트남	4.8	3.0	29.5	28.6	-3.9	33.2	
3	멕시코	11.0	-23.0	4.0	홍콩	0.4	-17.6	2.6	2.0	-24.7	2.3	
4	홍콩	6.2	-23.0	2.2	일본	0.3	68.6	1.8	1.1	73.9	1.3	
5	폴란드	5.1	-10.5	1.8	멕시코	0.3	-60.5	1.8	1.7	-50.3	2.0	
6	슬로바키아	3.9	0.9	1.4	폴란드	0.1	-63.2	0.9	0.8	-61.7	0.9	
7	미국	2.3	19.9	0.8	미국	0.1	-39.2	0.9	0.9	5.5	1.1	
8	일본	1.9	20.5	0.7	체코	0.1	-11.1	0.7	0.3	-40.5	0.3	
9	헝가리	1.9	93.5	0.7	대만	0.1	-11.5	0.5	0.4	-14.9	0.5	
10	터키	1.5	8.5	0.6	브라질	0.1	-39.0	0.4	0.3	-51.9	0.4	

자료 : IITP, KTSPi

## 4 휴대폰

### 1) 수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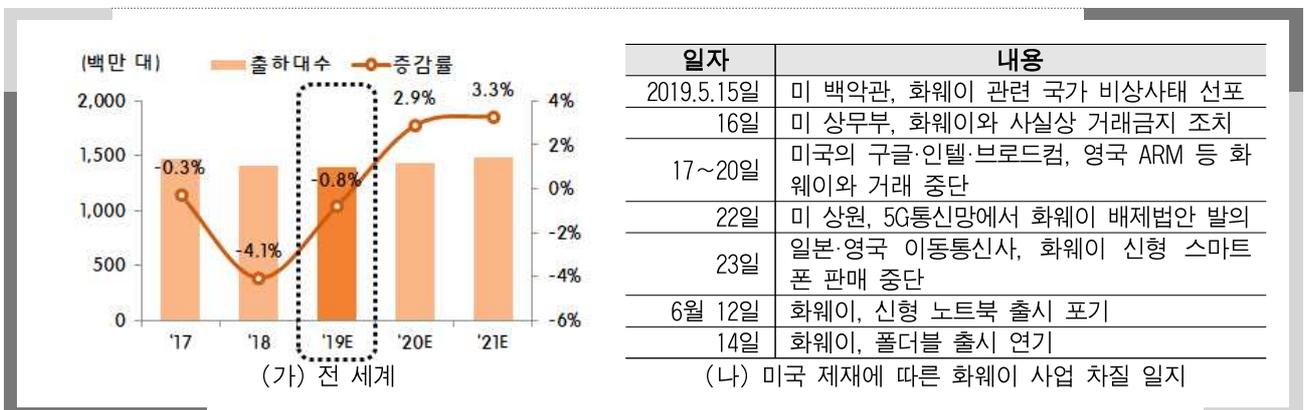
#### □ '19년 스마트폰 시장은 감소세가 지속, 화웨이 제재에 대한 영향으로 하향조정도 예상

- (시장 전망) 올해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13.9억 대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해 2년 연속 역성장하나 새로운 폼팩터가 적용된 제품 출시로 감소세는 둔화될 전망(IDC, '19.3월)
  - 폴더블 디스플레이, 멀티카메라 등 폼팩터 변화와 더불어 5G 스마트폰 등 성장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침체된 스마트폰 시장 내 분위기를 전환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높은 출고가, 시장 초기 콘텐츠 및 인프라 부족 등으로 폴더블 디스플레이, 5G 제품 수요가 '2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9년 시장은 감소폭 축소에 그칠 것으로 예측
  - 한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거래중단 제재 조치로 '19년 스마트폰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역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시장 전망치가 하향조정 될 가능성도 제기
    - ※ 당초 시장 전망에서는 6월 이후 5G로 시장이 활기를 띠며 1%대의 성장기조로 전환을 예상했으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혼란을 겪으며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1% 감소할 것으로 전망 수정(카운터포인트리서치, '19.5월)

#### □ 미국 제재에 따른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차질로 시장 내 경쟁구도에 변화 예상

- '19.5월 미국이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화웨이는 기존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상승은 물론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조달에도 난항
  - 화웨이가 미국의 거래금지 리스트에 포함(5.16일)되면서 인텔·퀄컴· 등 미국 반도체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됐으며 AP 설계 라이선스를 보유한 ARM도 동참하며 화웨이는 스마트폰 칩셋 수급에 제동
    - ※ '18년 화웨이가 부품 구입에 소비한 700억 달러 중 110억 달러를 거래가 중단된 퀄컴·인텔·마이크론 등에서 구매

그림 1-7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 전망 및 미국 제재에 따른 화웨이 사업 차질 일지



자료 : IDC, 2019.3.



- 또한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 중단에 따른 화웨이 스마트폰의 사후지원 등 소비자들의 우려 확대로 미국·영국·일본·대만 등의 주요 이동통신사들도 화웨이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유보
- 이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생산 차질, 폴더블폰 출시 연기 등으로 출하량 감소가 예상
  - 화웨이는 '19년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2억 5,000만 대 수준에서 전년 수준인 2억 1,000만 대로 하향 조정
    - ※ 한편, 시장조사업체 SA는 화웨이의 올해 연간 출하량이 2억 대를 하회(1억 6,520만 대)하고, 점유율도 '18년 14.4%→'19년 12.1%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19.6월)
  - 또한 '19.7월 출시 예정이던 5G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을 폴딩스크린 품질 향상을 이유로 9월로 연기했으며, 해외 시장을 겨냥하여 '19.5월 출시한 스마트폰 '아너20' 시리즈의 판매 중단도 고려
  -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액 중 내수 시장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타격이 더 크겠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제품 경쟁력 저하로 중국에서도 악영향이 예측
- 지난해 시장 2위로 부상한 화웨이의 판매 축소 전망으로 다른 경쟁사들은 수혜가 예상
  - 화웨이 제재가 지속될 경우 삼성전자는 최대 수혜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애플은 2위 탈환, LG전자 및 샤오미·오포·비보 등 중국 업체도 자국 및 중저가 시장에서 반사이익 예상
  - 특히 삼성전자·LG전자는 경쟁사 부재에 따라 5G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선점효과가 부각될 전망

표 1-8 | 화웨이 제재에 따른 경쟁업체의 동향

업체별	내용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의 최대 수혜가 예상되며, 중저가 및 5G 제품을 강화하며 입지 확대</li> <li>-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지속되면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대를 회복할 전망. '18년 20.3%였던 점유율도 올해는 2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SA, '19.6월)</li> <li>-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를 기본형과 실속을 높인 e형, 성능을 높인 s형으로 더욱 세분화해 중저가 라인업을 강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되고 중국의 거센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웨이 부재를 틈타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으로 분석</li> <li>- 삼성전자는 하반기 시장 선점을 위해 8.7일 미국에서 '갤럭시노트10' 언팩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갤럭시노트10'은 총 4종(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에 대해 각각 4G·5G 버전)으로 출시될 전망</li> </ul>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감소로 2위를 탈환하나 점유율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li> <li>- '19년 애플은 화웨이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위를 되찾을 전망. 그러나 애플은 전년 (14.4%, 2억 630만 대) 대비 소폭 하락한 13.4%(1억 8,280만 대)가 될 것으로 분석(SA, '19.6월)</li> <li>- 이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들도 혁신 없는 고가 전략으로 인해 하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애플의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화웨이 점유율은 한 자릿수로 반사이익은 적은 반면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로 중국에서는 아이폰 불매 운동까지 확산되면서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li> </ul>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월 출시한 5G폰 'V50 씽큐' 판매가 흥행하는 가운데 화웨이가 중저가 폰으로 집중 공략하던 중남미 시장에서 LG전자의 스마트폰 선호도가 높아 대체할 대표적인 업체로 거론되면서 수혜 기대</li> </ul>
중국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주요 스마트폰 생산 업체인 오포·비보·샤오미는 화웨이의 생산 난항으로 자국 및 중저가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출하량이 올해 대비 내년엔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SA, '19.6월)</li> </ul>

자료 : 각 사 / 언론 보도 자료 외

## 2) 수출 동향

### □ 글로벌 시장 위축에 따른 완제품·부분품 동반 감소로 10억 달러 하회

- **(품목별)** '19.5월 휴대폰 수출(9.3억 달러, △33.9%)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현지 생산 및 부분품 현지 조달이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
  - (휴대폰 완제품 : 4.0억 달러, △41.3%) 스마트폰 시장 성장 둔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 국내업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면서 하락세로 반전. 그러나 화웨이 제재 등 경쟁 업체의 부재 속에 5G 시장에서의 선점효과로 하반기 반등도 기대
    - ※ LG전자는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베트남 하이퐁과 브라질 상파울루로 이전하기로 결정(4.25일)
  - (휴대폰 부분품 : 5.2억 달러, △26.7%) 원가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부품업체의 해외 진출 증가,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 등 후발업체의 수주 증가 등으로 16개월 연속 하락세
- **(지역별)** 해외 생산 거점인 베트남은 증가했으나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 및 중국 등은 감소
  - 완제품 최대 수출국인 미국(2.7억 달러, △52.6%)은 5G 등 상반기 신모델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플렉시블 모델 출시에 따른 대기효과 등으로 완제품과 부분품이 동반 부진하며 3억 달러를 하회
  - 최대 생산 거점인 베트남(2.5억 달러, 15.9%↑)은 멀티카메라 탑재 확대에 따른 카메라모듈 및 PCB·커버(프레임·힌지 등) 등 부분품과 완제품(98.2%↑)이 동반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 중국(홍콩포함, 1.7억 달러, △48.5%)은 현지 업체의 시장 장악력 확대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 국내 업체의 생산라인 축소(삼성전자 '18.12월 텐진 생산라인 중단), 카메라모듈·eMMC 등 부분품과 완제품 모두 부진하며 '18.2월 이후 16개월간 감소세를 지속
  - 한편 호주는 국내 업체의 신모델 출시에 따른 완제품, 콜롬비아는 PCB·커버 등 부품 중심으로 급성장
    - ※ 삼성전자는 5.28일 호주(전 세계 중 세 번째)에서 '갤럭시 S10 5G'를 출시

**그림 1-8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ITP, SA



**표 1-9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5	6	7	8	9	10	11	12	'19.1	2	3	4	5
휴대 단말기	14.0 (3.9)	12.8 (2.6)	13.5 (6.4)	13.0 ( $\Delta$ 21.0)	11.5 ( $\Delta$ 37.2)	14.2 ( $\Delta$ 24.5)	10.3 ( $\Delta$ 46.7)	8.9 ( $\Delta$ 35.4)	9.4 ( $\Delta$ 31.5)	8.6 ( $\Delta$ 13.6)	9.1 ( $\Delta$ 33.0)	10.4 ( $\Delta$ 0.1)	9.3 ( $\Delta$ 33.9)
완제품	6.9 (75.7)	6.7 (70.4)	6.3 (38.6)	5.1 ( $\Delta$ 15.4)	4.1 ( $\Delta$ 36.8)	6.1 ( $\Delta$ 19.4)	4.5 ( $\Delta$ 43.9)	3.9 ( $\Delta$ 5.0)	4.3 (10.9)	4.6 (31.6)	4.0 ( $\Delta$ 38.7)	5.3 (43.9)	4.0 ( $\Delta$ 41.3)
부분품	7.1 ( $\Delta$ 25.5)	6.1 ( $\Delta$ 28.6)	7.1 ( $\Delta$ 11.7)	7.8 ( $\Delta$ 24.3)	7.4 ( $\Delta$ 37.5)	8.2 ( $\Delta$ 27.8)	5.8 ( $\Delta$ 48.7)	5.0 ( $\Delta$ 48.3)	5.2 ( $\Delta$ 48.0)	4.0 ( $\Delta$ 38.3)	5.1 ( $\Delta$ 27.7)	5.0 ( $\Delta$ 24.5)	5.2 ( $\Delta$ 26.7)

자료 : IITP, KTSPi

**그림 1-9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5월 누적	
1	미국	50.5	-10.0	34.6	미국	2.7	-52.6	28.6	18.2	-13.7	38.9
2	중국	39.3	-36.7	26.9	베트남	2.5	15.9	26.6	10.6	-3.1	22.7
3	베트남	25.1	-23.1	17.2	중국	1.4	-54.6	14.8	7.5	-57.5	15.9
4	캐나다	6.4	200.1	4.4	캐나다	0.5	-17.8	5.7	2.2	46.6	4.8
5	홍콩	3.6	-41.6	2.5	호주	0.4	936.8	4.4	0.5	96.0	1.0
6	일본	2.8	-11.7	1.9	홍콩	0.3	14.9	3.6	1.4	-15.0	3.0
7	독일	2.7	20.1	1.8	독일	0.2	-67.1	2.7	0.6	-31.7	1.3
8	브라질	2.5	-56.7	1.7	콜롬비아	0.2	28,431.0	1.6	1.1	28,954.7	2.4
9	콜롬비아	1.9	883.9	1.3	일본	0.1	-21.0	1.5	0.7	-55.1	1.5
10	인도	1.5	-58.3	1.0	영국	0.1	147.2	1.3	0.2	-19.4	0.5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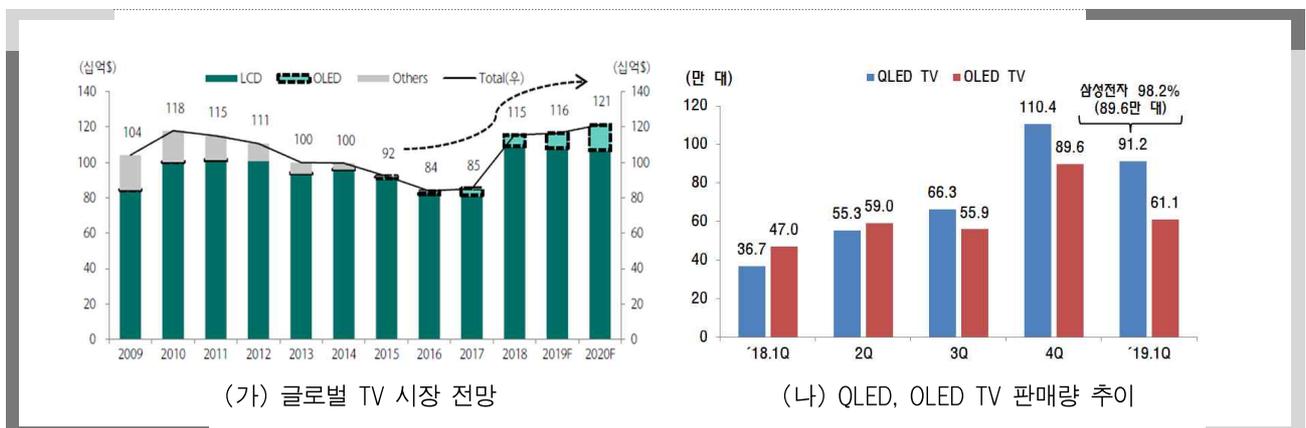
## 5 D-TV

### 1) 수출 환경

#### □ TV 시장의 호조 속에 수익성 측면 등에서 효율적인 OLED TV의 성장세가 기대

- '19.1분기 글로벌 TV 시장 규모는 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출하량은 다소 늘어난 5,200만 대를 기록(ZDNet 5.22. 원소스 IHS)
  - 초고화질(8K) 수요가 대형 제품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체 TV 시장에서 70인치 이상 제품 비중은 5.1%('18.1Q) → 7.6%('19.1Q), 60인치 비중도 동기간 14.8% → 19.1%로 성장세가 관측
  - 초대형 시장을 공략한 한국 업체는 '19.1분기에 압도적 점유율(매출액 기준)인 45.9%(삼성 29.4%, LG 16.5%)로 시장 장악. 뒤이어 소니(8.3%), TCL(7.5%) 등이 차지(서울경제 5.22. 원소스 IHS)
    - ※ 참고로 출하량 기준으로는 한국(31.6%)이 중국(35%)에 역진 허용(전자신문 5.26. 원소스 IHS)
- QLED vs OLED TV 시장의 신경전 속 폼팩터 등 다변화가 가능한 OLED TV에 주목
  - '19.1분기에는 8K 제품 본격 판매, 라인업 확대 전략 등에 힘입어 전체 QLED TV 매출액 (18.7억 달러)이 OLED TV(13.7억 달러)를 앞서는 결과 기록(연합뉴스 5.22. 원소스 IHS)
  - QLED TV는 경쟁 제품인 OLED TV와 비교해 제작비용이 낮아 대형화를 통한 수익 확보에 유리
  - 반면 OLED TV는 수익성 극대화(LCD에 비해 OLED 부품 개수는 단순), 패널 변형 등이 가능한 OLED 디스플레이의 장점으로 향후 업체들은 OLED TV 신규 투자 또는 가동 가속화를 전개할 전망
  - 롤러블 등 새로운 폼팩터 변화에 따라 '19년 OLED TV 판매량은 400만 대(59%↑) '20년에는 700만 대(75%↑)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유진투자증권)

**그림 1-10 | 글로벌 TV 시장 전망 및 QLED, OLED TV 판매량 추이**



자료 : IHS, 하나금융투자 / 연합뉴스 5.22. (원소스 IHS)



## □ 북미·인도의 프리미엄(8K TV, 스마트 TV 등)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 간 경쟁 격화

- **(북미 시장)**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북미에서 8K T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업체 간 경쟁이 치열
  - 美 8K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선점중인 가운데 소니가 최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양강 체제가 형성. 하반기도 LG전자 ‘8K OLED TV’ 출격으로 ’19.3분기 전 세계 8K TV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
  - (소니) 85·98형 ‘8K TV’ 2종을 6.10일 출시해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 85형은 약 1만 3,000 달러, 98형은 약 7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판 이틀 만에 완판을 기록(베스트 바이)
  - (삼성전자) 소니의 역습에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할인(82형 ‘8K QLED TV’의 경우 2,000 달러 할인) 공세로 맞대응. 이미 선점한 8K TV 시장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
  - (LG전자) ‘8K OLED TV’를 3분기부터 북미·유럽 등에 확대 출시해 8K 시장 경쟁에 본격 진입할 계획
- **(인도 시장)** 국내 업체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인도 TV 시장 수성에 총력
  - 인도 TV 시장은 ’18년 39.2억 달러 → ’19년 42억 달러(7%↑)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꼽히는 55인치 이상에서 동기간 4.7억 달러 → 8.4억 달러(78.7%↑)로 급성장할 전망
    - ※ 올해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크로켓 월드컵(5.30~7.14일)이 개최돼 큰 폭의 수요 확대도 기대
  - (삼성전자) 인도 TV 시장서 13년째 1위, ’18년 55인치 이상 분야에서도 점유율 1위(47%)를 달성. 최근 인도 소비자들의 특성을 적용한 ‘2019년형 QLED 8K TV’ 라인업도 공개(6.5일)
    - ※ TV를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 기능, 오디오처럼 즐기는 ‘뮤직 시스템’ 기능,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홈 클라우드’, 스마트폰 영상을 실시간으로 TV에 전송 가능한 ‘라이브 캐스트’, TV와 스마트폰 간 ‘양방향 콘텐츠 교환’ 기능 등이 포함
  - (LG전자) 인도 스마트 TV 시장에서 지난해 물량 기준 점유율 1위(28.2%)를 달성. 최근 ‘ALTBalaji (인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TV 탑재를 통한 콘텐츠 확장으로 거세지는 중국 공세 속에 차별화 모색
    - ※ 최근 TCL은 AI를 적용한 스마트 TV 제품을 개발 중이고, 샤오미는 저가의 스마트 TV를 인도 시장에 선보인 상황

그림 1-11 | 각 사의 8K TV 이미지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5) 초고화질(8K)을 지원하면서 OLED TV 중 최초로 가장 큰 크기인 88형인 점이 특징

## 2) 수출 동향

### □ 최대 성장률(158.8%) 기록을 경신하며 '16.10월 이후 최대 실적인 3.1억 달러를 달성

※ D-TV 수출 역대 최대 성장률 Top3 : 1위 158.8%( '19.5월), 2위 129.0%( '03.12월), 3위 117.2%( '03.11월)

- **(품목별)** 패널가 하락, 지난해 스포츠 이벤트 기저효과 등으로 완제품 수출은 감소했으나 부분품은 양호한 흐름이 지속돼 2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전체 TV 수출 성장을 견인
  - (LCD TV : 0.3억 달러,  $\Delta$ 13.9%)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스라엘·UAE의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18.3월 이후 하락세 지속
  - (OLED TV : 0.1억 달러,  $\Delta$ 58.7%) 신흥국인 인도(594% $\uparrow$ ) 등의 수출은 늘어났으나 주력 수출국인 일본( $\Delta$ 61.2%)·미국( $\Delta$ 73.4%)이 하락하면서 감소세
  - (부분품 : 2.7억 달러, 352.7% $\uparrow$ ) 글로벌 TV 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해외 생산 거점(멕시코·브라질·베트남 등)으로의 부분품 수출이 크게 성장하며 사상 최대 성장률(352.7%) 기록
- **(지역별)** 부분품 주요 수요국인 멕시코·브라질·헝가리 등은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완제품 수요국인 일본 등은 하락 반전
  - 프리미엄 TV 최대 시장인 북미 공급 거점 멕시코(1.2억 달러, 921.1% $\uparrow$ ), 3월부터 8K TV를 공급하기 시작한 남미 시장 공급 거점 브라질(0.3억 달러, 1,473.1% $\uparrow$ ) 등의 부분품 수출이 급상승세
  - 유럽 생산 거점인 헝가리(0.1억 달러, 5,462% $\uparrow$ )의 경우 8K TV 등을 출시하기 위한 생산 물량 확대로 부분품 수출 성장률이 '19.1월부터 네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성장세
  - 완제품 수출에 강세를 보였던 일본(2.6억 달러,  $\Delta$ 38.9%)은 러시아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기저효과가 지속돼 LCD·OLED TV 수출이 줄어들면서 하락 반전

**표 1-11 |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5	6	7	8	9	10	11	12	'19.1	2	3	4	5
D-TV	1.2 ( $\Delta$ 31.7)	1.0 ( $\Delta$ 45.2)	1.2 ( $\Delta$ 39.9)	1.2 ( $\Delta$ 49.0)	1.1 ( $\Delta$ 52.6)	1.0 ( $\Delta$ 35.4)	1.7 (22.8)	2.0 (69.9)	2.7 (77.5)	2.4 (68.9)	2.9 (74.9)	2.9 (111.3)	3.1 (158.8)
LCD TV	0.4 ( $\Delta$ 24.6)	0.4 ( $\Delta$ 33.7)	0.3 ( $\Delta$ 43.2)	0.2 ( $\Delta$ 35.0)	0.2 ( $\Delta$ 56.9)	0.2 ( $\Delta$ 43.2)	0.2 ( $\Delta$ 64.1)	0.2 ( $\Delta$ 60.3)	0.3 ( $\Delta$ 41.8)	0.3 ( $\Delta$ 48.7)	0.4 ( $\Delta$ 33.1)	0.4 ( $\Delta$ 21.3)	0.3 ( $\Delta$ 13.9)
OLED TV	0.2 ( $\Delta$ 2.3)	0.1 ( $\Delta$ 38.4)	0.1 ( $\Delta$ 51.5)	0.1 ( $\Delta$ 49.4)	0.2 ( $\Delta$ 20.1)	0.1 ( $\Delta$ 25.9)	0.1 ( $\Delta$ 17.6)	0.1 ( $\Delta$ 40.8)	0.1 ( $\Delta$ 51.3)	0.1 ( $\Delta$ 35.4)	0.1 ( $\Delta$ 50.0)	0.1 ( $\Delta$ 24.8)	0.1 ( $\Delta$ 58.7)
부분품	0.6 ( $\Delta$ 41.5)	0.5 ( $\Delta$ 51.8)	0.8 ( $\Delta$ 37.3)	0.8 ( $\Delta$ 52.7)	0.7 ( $\Delta$ 56.2)	0.7 ( $\Delta$ 34.5)	1.4 (87.9)	1.7 (172.2)	2.3 (187.5)	2.0 (210.0)	2.3 (193.3)	2.4 (241.3)	2.7 (352.7)

자료 : IITP, KTSPI



그림 1-12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5월 당월				1~5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1	멕시코	2.4	-31.8	14.4	멕시코	1.2	921.1	40.2	4.1	453.1	29.1
2	중국	1.7	4.7	10.2	브라질	0.3	1473.1	11.1	1.1	398.9	7.5
3	폴란드	1.2	-14.3	7.1	중국	0.2	372.0	7.3	1.5	410.6	10.7
4	UAE	1.1	-48.0	6.9	베트남	0.2	330.8	7.1	1.2	355.1	8.4
5	미국	1.0	-16.5	6.3	이집트	0.2	210.1	5.3	0.7	147.6	5.0
6	일본	0.7	27.3	4.4	헝가리	0.1	5462.0	4.1	0.9	5005.9	6.3
7	이스라엘	0.7	47.5	4.1	미국	0.1	10.3	2.7	0.3	-12.3	2.4
8	베트남	0.6	-50.8	3.8	일본	0.1	-38.9	2.6	0.4	-1.7	2.6
9	호주	0.6	-47.1	3.7	인도	0.1	173.6	2.6	0.3	126.9	1.8
10	브라질	0.5	-54.8	3.3	아랍에미리트 연합	0.1	-64.6	1.7	0.2	-73.2	1.8

자료 : IITP, KTSPi

##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 수출 환경

#### □ PC 시장은 무역 전쟁 등으로 역성장 지속...업체들은 '컴퓨텍스 2019'서 신제품 대거 공개

- (시장 전망)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올해 글로벌 PC 시장은 2억 5,435만 대(△1.3%)로 축소될 전망이다(IDC, '19.3월)
  - 완제품 PC 시장의 주력 품목인 노트북은 전 세계 물량의 90%가 중국에서 생산중인 만큼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
  -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제조사들은 대만,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인프라와 부품 공급망 등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
  - 한편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제한 조치로 노트북에 탑재되는 부품·운영체제 등의 수급이 중단되면서 신제품 노트북 PC 출시를 무기한 연기(6.12일)한다고 발표
- (업체 동향)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글로벌 IC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19(5.28일)'에서 주력 업체들이 신제품을 출시하며 주목
  - (퀄컴, 레노버) 퀄컴과 레노버의 합작으로 개발한 'X55(스냅드래곤 8cx와 5G를 지원)' 통신칩을 신제품 노트북인 '프로젝트 리미트리스(Project Limitless)'에 탑재해 공개('20년 초 출시 계획)
  - 5G를 활용한 초 연결성으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점, 대용량 파일 전송 시 지연 시간이 최소화되는 점 등이 장점
    - ※ 한편 레노버는美에서 열린 '엑셀러레이트 콘퍼런스(6.13일)'에서 세계 최초로 폴더블 PC 시제품도 공개
  - (델) 10세대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XPS 13 투인원(올해 말 출시 예정)'과 게이밍 노트북인 '에일리언 웨어 M13, M15(7월 출시 예정)' 등을 공개
  - (ASUS) 세계 최초로 4K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젠북 프로듀오'와 '비보북', '커머셜 노트북' 등의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여 다양한 소비자(게이머, 크리에이터 등)의 니즈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
- (AMD vs 인텔) 양사간 PC용 프로세서(CPU)의 차세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
  - (AMD) 이전 세대 제품에 비해 IPC(클럭당 명령어 처리 속도)를 최대 15%까지 향상시켰고 게임과 사진·동영상 편집에도 최적화돼 있는 3세대 라이젠 CPU(7.7일 출시 예정)를 공개
  - (인텔) 오버클러킹(CPU를 맞춤 튜닝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한 9세대 인텔 코어 'i9-9900KS'를 공개('19년 말 출시 예정). 이어, 현재 양산중인 10세대 프로세서('아이스 레이크')로 차세대 노트북 시장 혁신도 선도할 것이라 강조



### 그림 1-13 | 신제품 PC 이미지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 (태블릿 PC) 수요 둔화가 지속되자 폼팩터, OS 등에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 대화면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태블릿 PC의 입지가 축소돼 '19년 태블릿 PC 출하량은 1.4억 대(△6.4%)로 감소세가 예상(IDC, '19.5월)
- 키보드와 모니터 분리가 가능한 디테처블 제품(2,210만 대, 6.2%↑)은 상승세인 반면 기존 슬레이트 태블릿(1.1억 대, △8.5%)은 수요 침체가 지속될 전망
  - ※ 기존 슬레이트 태블릿의 비중 전망(% , IDC, '19.5월) : ('19년) 83.8, ('20년) 81.7, ('21년) 80.5, ('22년) 79.1
- (마이크로소프트) 과거에 시도했던 '쿠리어(Curier)' 태블릿처럼 비슷한 크기의 듀얼 스크린으로 구성된 '켄타우루스(Centaurus)' 신제품을 내부 직원들에게 공개(6.2일)하면서 출시 기대감이 고조
- (애플) 스마트폰과 똑같은 운영체제(iOS)를 탑재한 '아이패드'는 현재 태블릿 PC만의 장점이 미미한 상황. 이에 기기간의 차별화를 위해 PC 전용 기능 등이 추가된 전용 OS('iPadOS'6)로 교체 적용할 계획
  - ※ 태블릿 PC가 지닌 화면이 큰 모바일 기기란 이미지를 탈피하고 PC라는 인식을 심어 수요를 확대할 전략. 'iPadOS'는 '아이패드 에어2' 이상 제품에만 탑재돼 가벼운 PC 수준의 기능과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

### 그림 1-14 | 태블릿 PC 시장 전망 및 마이크로소프트 '쿠리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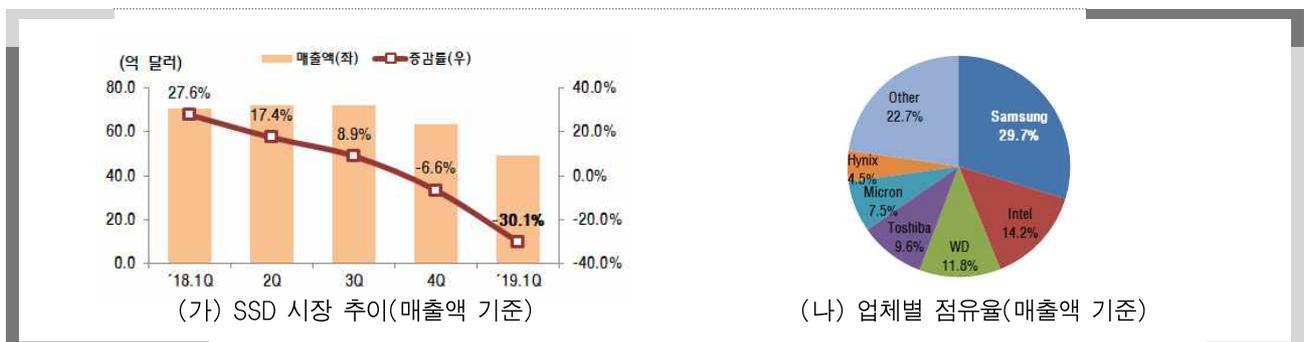
자료 : IDC, 2019.5. / 언론 자료 인용

6) 애플은 '2019 세계 개발자 대회(WWDC)'에서 아이패드 전용 OS를 발표(6.3일). 이 운영 체제는 아이패드에서 부족했던 PC 기능(파일 관리 기능, 폴더 공유 등)을 다수 포함한 점, 멀티태스킹 기능을 강화한 점, 제스처만으로도 애플리케이션 이동이 가능한 점 등이 특징

## □ (SSD) 수익성 악화로 업체들은 효율성 높은 ‘QLC(퀵드 레벨 셀)’ 기술에 집중

- (시장 규모) '19.1분기는 SSD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출하량(6,023만 대, 20.7%↑)은 늘었으나 평균판매단가가 지속 하락해 매출액(49.2억 달러, △30.1%)은 감소(IDC, '19.5월)
  - 낸드플래시의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여파 등으로 SSD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 '19년 1분기 1GB당 가격은 0.26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1%가 하락
    - ※ SSD 1GB당 가격(\$, IDC) : ('17.1Q) 0.50 → ('18.1Q) 0.45 → ('19.1Q) 0.26
  - (소비자용) PC용 부품 교체(HDD→SSD), 게이밍 제품에의 SSD 탑재 등 수요가 늘어나 출하량(5,037만 대, 26.1%↑)은 확대됐으나 매출액(23.7억 달러, △24.7%)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감소
  - (기업용) 빅데이터·IoT 등의 4차 산업 대비, 클라우드 서버 수요 증가 등으로 출하량은(682만 대, 0.9%↑)증가했으나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매출액(24.9억 달러, △34.8%)은 내림세 관측
  - 업체별 시장 점유율('19.1분기 매출기준)은 삼성전자(29.7%), 인텔(14.2%), WD(11.8%), 도시바(9.6%), Micron(7.5%), SK하이닉스(9.5%) 순으로 상위권 차지(IDC, '19.5월)
- (업체 동향) ‘QLC(퀵드 레벨 셀) SSD’ 제품 생산과 동시에 단점(7)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
  - (삼성전자) 업계 최초로 QLC 기술을 적용한 SSD ‘860 QVO 시리즈’를 출시('18.12월)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QLC SSD 생산량을 늘려 원가 경쟁력을 개선할 전망
  - (SK하이닉스) 최근 ‘96단 4D QLC SSD’ 샘플을 관련 업체에 출하(5.9일)해 긍정적인 반응을 관측
  - (인텔) 옵테인(Optane)과 QLC 3D 낸드 기술을 결합한 ‘인텔 옵테인 메모리 H10 SSD’는 QLC 기술의 단점이었던 느린 처리 속도를 옵테인 기술로 개선한 제품으로 주목
    - ※ 인텔과 마이크론이 공동 개발한 옵테인(Optane)은 ‘3D XPoint 기술’을 기반으로 저장장치의 속도 향상과 쾌적한 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

**그림 1-15 | SSD 시장 추이 및 업체별 점유율**



자료 : IDC, 2019.5.

7) QLC 기술은 같은 면적에 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 생산 단가 절감에는 유리하지만 기존 SSD보다 속도가 느리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문제점을 보유했다.



## 2) 수출 동향

### □ SSD 등 주변기기의 하락세로 전체 수출액은 25.3% 하락한 7.0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액은 전월 대비 소폭 반등했으나 가격 하락에 따른 SSD의 수익성 악화로 전년 동월대비 하락세가 관측
  - (컴퓨터 : 1.7억 달러, 78.8%↑) 노트북, 게이밍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CPU 등의 부품 수출(1.4억 달러, 105.3%↑) 상승이 컴퓨터 수출 성장을 견인
  - (주변기기 : 5.3억 달러, △37.1%) 보조기억장치의 주력 수출품인 SSD가 3억 달러 대로 재진입했으나 재고 물량 압박,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세는 여전
- **(지역별)** 주요 수출국인 중국(홍콩포함)·미국은 주변기기 수출 감소로 하락한 반면 일본은 상승세
  - 중국(홍콩포함, 3.4억 달러, △23.7%)은 컴퓨터 수출액(1.3억 달러, 147.5%↑)이 15개월째 호조세지만 주변기기(2.1억 달러, △46.5%)의 하락세로 전체 수출액이 감소
  - 미국(1.5억 달러, △22.4%)은 '18.7월부터 지속된 주변기기(1.4억 달러, △22.2%)의 하락세가 전체 수출액의 내림세를 주도
  - 일본(0.3억 달러, 6.2%↑)은 컴퓨터(0.04억 달러, 31.1%↑)와 프린터·모니터 등의 주변기기 수출(0.3억 달러, 3.1%↑)이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

**표 1-1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18.5	6	7	8	9	10	11	12	'19.1	2	3	4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9.4 (28.0)	11.8 (47.2)	9.2 (9.5)	9.8 (13.1)	9.9 (4.0)	8.8 (5.1)	8.1 (△10.1)	7.7 (△15.3)	6.8 (△26.7)	6.0 (△32.6)	6.9 (△36.9)	5.8 (△33.1)	7.0 (△25.3)
컴퓨터	1.0 (△5.2)	1.2 (13.9)	1.0 (3.7)	1.2 (29.1)	1.1 (12.1)	1.4 (56.0)	2.3 (128.3)	2.3 (82.4)	1.9 (81.3)	1.6 (92.3)	1.9 (72.0)	1.6 (59.4)	1.7 (78.8)
부품	0.7 (4.1)	0.7 (△4.4)	0.8 (8.1)	0.8 (17.0)	0.8 (17.2)	1.0 (60.5)	1.9 (171.0)	1.7 (112.9)	1.5 (105.4)	1.3 (140.1)	1.4 (96.7)	1.3 (112.2)	1.4 (105.3)
주변기기	8.5 (33.2)	10.7 (52.1)	8.2 (10.3)	8.6 (11.2)	8.8 (3.1)	7.4 (△0.8)	5.8 (△27.6)	5.4 (△31.1)	4.9 (△40.4)	4.4 (△45.5)	5.1 (△48.8)	4.2 (△45.2)	5.3 (△37.1)
보조기억장치	6.4 (36.0)	8.6 (74.8)	5.9 (6.9)	5.8 (0.1)	6.4 (9.8)	5.3 (△7.1)	3.9 (△34.3)	3.4 (△39.5)	3.0 (△52.8)	3.1 (△51.8)	3.1 (△60.4)	2.4 (△59.4)	3.7 (△42.4)
프린터	0.4 (△14.9)	0.5 (△19.5)	0.5 (0.1)	0.5 (1.4)	0.5 (△48.7)	0.5 (23.1)	0.5 (△8.8)	0.4 (△13.8)	0.4 (8.1)	0.3 (△7.0)	0.4 (△3.8)	0.4 (△7.5)	0.4 (△18.7)
모니터	0.9 (20.4)	1.0 (11.8)	1.0 (6.1)	1.0 (5.8)	0.8 (△26.9)	1.1 (36.6)	0.9 (△11.9)	0.9 (2.5)	1.0 (3.8)	0.6 (△29.4)	0.9 (△10.9)	0.9 (△7.4)	0.8 (△14.5)

자료 : IITP, KTSPI

**그림 1-16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5월 당월				1~5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5.3	32.8	31.4	중국	2.8	-11.3	39.4	12.0	-14.9	36.7
2	미국	25.2	1.0	22.4	미국	1.5	-22.4	20.7	7.0	-40.2	21.3
3	홍콩	15.8	56.2	14.0	홍콩	0.6	-52.5	9.1	2.7	-59.4	8.3
4	멕시코	4.1	6.5	3.6	일본	0.3	6.2	4.1	1.4	-4.0	4.4
5	일본	3.9	1.4	3.5	인도	0.2	68.4	2.4	0.5	35.2	1.7
6	독일	2.2	30.2	1.9	네덜란드	0.2	6.6	2.2	0.8	-8.2	2.5
7	네덜란드	2.1	8.0	1.8	독일	0.1	-27.6	2.0	0.6	-21.1	2.0
8	아일랜드	1.7	0.6	1.5	멕시코	0.1	-69.9	1.9	0.8	-59.0	2.5
9	싱가포르	1.5	-3.3	1.4	싱가포르	0.1	-17.9	1.8	0.6	-15.7	1.8
10	체코	1.4	1.4	1.2	베트남	0.1	23.9	1.5	0.5	34.1	1.7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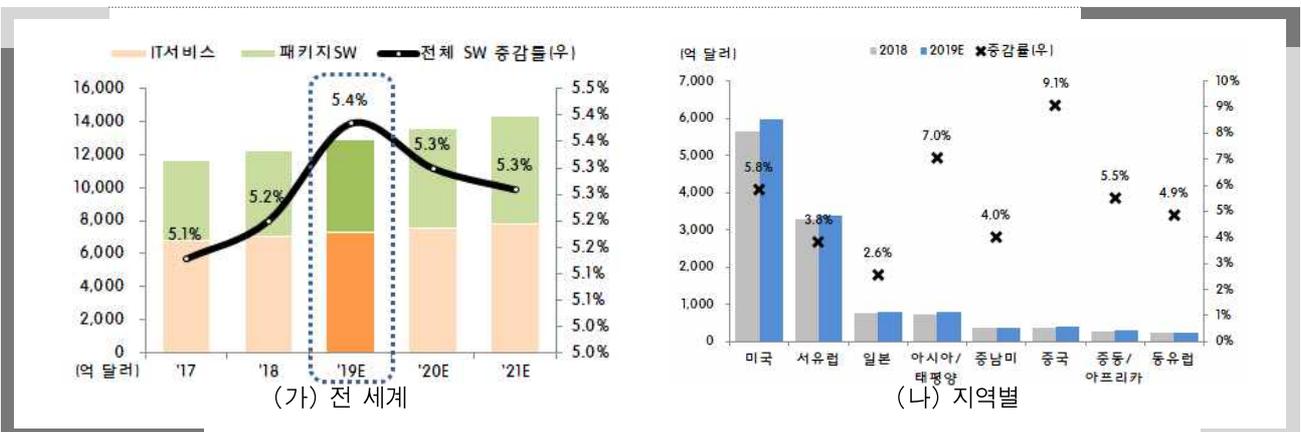
# 7 SW

## 1) 수출 환경

### □ SW 시장은 AI 등 신기술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성장세 예측

- (시장 전망) '19년 SW 시장은 전년대비 5.4% 상승한 1조 2,942억 달러 예상(IDC, '19.5월)
  - 기업에서의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sup>8)</sup> 적용 확대에 따라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공공·금융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 증가 등으로 관련 SW 시장도 확대될 전망
    - ※ 전 세계 RPA 시장은 '17년 4.3억 달러→'22년 24.5억 달러(연평균 41%↑)로 성장 전망(Gartner, '18.10월)
  - 패키지SW 시장은 지난해(7.7%↑)에 이어 올해(8.0%↑)도 성장세를 지속해 5,65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년에는 6,000억 달러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IT서비스는 '19년 3.5% 성장한 7,286억 달러로 패키지SW 시장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지역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중남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장세가 예측
  - 대부분의 지역에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은 패키지SW(8.6%↑)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5,956억 달러(5.8%↑) 규모로 확대될 전망
  - 중국(9.1%↑)·아시아/태평양(7.0%↑) 지역은 7%대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 동유럽(4.9%↑)·중동/아프리카(5.5%↑)·중남미(4.0%↑) 등은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나, 서유럽(3.8%↑)·일본(2.6%↑) 등 선진 시장은 2~3%의 비교적 낮은 성장세가 예상

그림 1-17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19.5.

8)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이고, 단순 프로그래밍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

## □ (업체동향) 삼성SDS, 해외투자를 확대하며 차세대 보안 솔루션 기술 확보에 총력

- 삼성SDS는 최근 3년간 보안·클라우드·블록체인·데이터분석 등 미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단행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
  - '16.7월 블록체인 기반 개발 플랫폼 스타트업인 블로코를 시작으로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19년 이스라엘 이과지오(3월), 미국 지터빗(5월)에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
  - 6.9일엔 차세대 보안기술인 EDR<sup>9)</sup>을 보유한 센티넬원에 투자, AI·머신러닝 기반 보안 솔루션 확보

**표 1-15 | 삼성 SDS IT 기업 투자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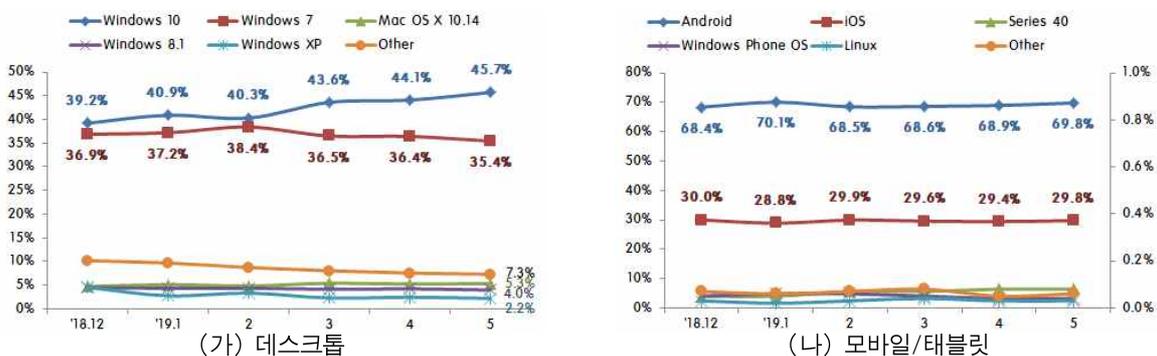
투자시기	투자 업체	주요 기술
2019.6월	센티넬원(미국)	단말기 위협 탐지·대응 보안 솔루션 기업
2019.5월	지터빗(미국)	애플리케이션 연계 솔루션 기업
	CMC(베트남) 지분 25% 인수합의(500억 원 투자)	베트남 IT서비스 기업
2019.3월	이과지오(이스라엘)	클라우드 서버리스 컴퓨팅 기술 기업
2018.5월	비트퓨전(미국)	GPU 가상화 기술 기업
2017.1월	실라DB(미국)	비정형 데이터처리 기술 기업
2016.7월	다크트레이스(영국)	머신러닝 기반 차세대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블로코(한국)	블록체인 기반 개발 플랫폼 스타트업

자료 : 삼성SDS, 머니투데이, 2019.6.

## □ (OS 시장) '19.5월 데스크톱과 모바일/태블릿은 상위 OS간 격차가 확대

- (데스크톱) 윈도우10은 업데이트 등으로 전월대비 1.6%p 상승한 45.7%의 시장점유율로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윈도우7은 35.4% 0.1%p 감소하며 양 OS간 격차는 10.3%로 확대
- (모바일/태블릿) 삼성전자 화웨이 등 스마트폰 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안드로이드는 0.9%p 증가한 69.8%를, iOS는 7세대 아이패드 출시(5.29일) 등으로 0.4%p 늘어난 29.8%를 기록

**그림 1-18 | 전 세계 OS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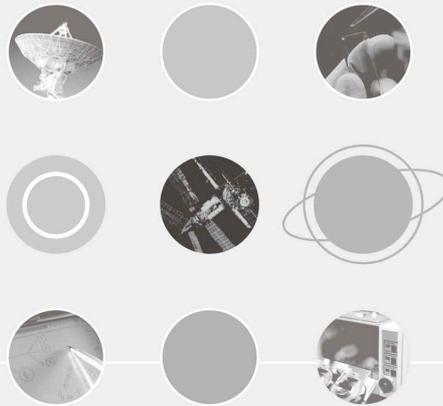
자료 : NetMarketShare, 2019.5.

9)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는 PC, 서버, VDI(가상 데스크톱 환경) 등 단말에서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센티넬원의 EDR 솔루션은 AI(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로 악성코드 유형을 학습해 신종·변종 악성코드와 해킹공격을 차단



# II

## 트레이드 GPS



## II 트레이드 GPS<sup>10)</sup>

### 1 프랑스 - 광케이블

#### □ (수요 증가) 프랑스 5G 및 초고속 광대역망 구축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 증가

- (5G 통신망) 프랑스 통신규제국(ARCEP)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5G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세부계획을 수립('18.7.16일)
  - 프랑스 5G 로드맵은 유럽연합의 로드맵에 기반 한 것으로, 자국 경쟁력 극대화,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
  -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파수 할당, 새로운 활용 사례 개발 촉진, 인프라 구축, 5G 보급 관련 투명성·대화 보장 등 4대 실행방침 설정
    - ※ ('18) 로드맵 발표,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 ('19) 주파수 할당 → ('20) 상용화
  - 프랑스 정부는 파리 등 전국 22개 지역에 5G 기술 테스트를 허가했으며, '19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도시에 5G 망을 구축하고 '25년까지 주요 산업별로 인프라를 확산한다는 청사진도 제시
    - ※ 프랑스 1위 이동사인 오렌지는 파리와 일부 지역에서 5G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시범망을 구축
  -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25년까지 광케이블 등 네트워크 장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2-1 프랑스 5G 로드맵 주요 내용 및 5G 테스트 승인 지역

시기	주요 내용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주요 지역에서 5G 테스트 및 파일럿 프로젝트 발주</li> <li>- 사용 시 신분확인 및 전시장에서의 정보 수집</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진적인 광대역 5G 주파수 자유화</li> <li>• 최초의 호환성 단말기 상업화</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파수 할당 및 허가에 따르는 의무사항 정의</li> <li>• 최소 1개 이상의 도시에 상업적 5G 구축</li> </ul>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도로 및 산업지역을 커버하는 5G 인프라 구축</li> </ul>

(가) 프랑스의 5G 로드맵 주요 내용

(나) 프랑스 내 5G 테스트 승인 22개 지역 도표



자료 : ARCEP, '5G Work Programme', 2018.7월

10)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광대역망) 정부 및 이동통신사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대역망 투자 확대**
  - 프랑스 정부는 '22년까지 전국에 100Mbps 속도의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국가브로드밴드플랜'(France Très Haut Débit; The National Broadband Plan)을 추진('13.2월)하며 10년 동안 200억 유로를 투자해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망을 구축 중
    - ※ '19.3.31일 기준, 프랑스 전체의 종단 간 광섬유 액세스 회선 수는 530만 개로 전년보다 170만 개 증가. 최대 다운로드 속도 30Mbps 이상 초고속 광대역 가입이 '19.1분기에만 56.5만 건 증가하면서 가입자 중 3분의 1이 초고속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ARCEP, '19.6월)
  - 또한 프랑스 최대 다국적 통신사인 오렌지텔레콤은 '20년까지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망 기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망고도화사업(Essentiels 2020 Focus on FTTH<sup>11)</sup>)'을 발표('16.5월)했으며 FTTH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케이블 통신망 투자도 확대
    - ※ 총 사업 규모는 15억 유로. 이 중 광모듈 사업은 96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오렌지텔레콤은 광통신망 기반이 갖춰지는 대로 '22년까지 프랑스 1,800만 가구를 인터넷 광통신망으로 연결할 계획
  - 오렌지텔레콤의 광통신망은 '19.3월 기준 공공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구역내 50만 개 이상의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9년 말까지 약 300만 곳의 연결로 확대될 전망

## □ (업체 동향) 국내 업체는 통신업체 및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진출 확대

- 국내 업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광케이블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며, 유럽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면서 경쟁력을 확보

표 2-2 | 국내 광케이블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LS산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14일 폴란드 지에르조니우프시에서 케이블 공장을 준공했으며 유럽 진출 핵심기지로 육성</li> <li>-LS전선은 지난해 2월 LSEVP 공장 부지에 광케이블 생산법인(LSCP)도 설립. 한국 구미와 베트남 호찌민에 이은 LS전선의 세번째 광케이블 공장으로서 LSCP는 유럽 시장의 약 7%에 해당하는 생산 능력을 갖추고, '19.4월부터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통신사에 제품을 공급</li> <li>-'17.4분기 프랑스 Sogetrel과 Covage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18.1분기에는 NGE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주</li> </ul>
 DAS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산네트웍스는 프랑스 최대 방송 통신망 회사인 TDF와 초고속 통신망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및 5년간의 장기 장비공급 기본 계약을 체결('18.6.22일)</li> <li>-다산네트웍스는 동 계약을 통해 5년간 광케이블 등 광통신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통신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 장비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프랑스 스마트 시티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목표</li> </ul>
 대한광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정부의 국가브로드밴드플랜에 광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17.12월)</li> <li>-대한광통신은 노르빠드갈레 초고속망 구간 68만 가입자를 위해 약 20,000km의 FTTH망을 구축하며 5년간 5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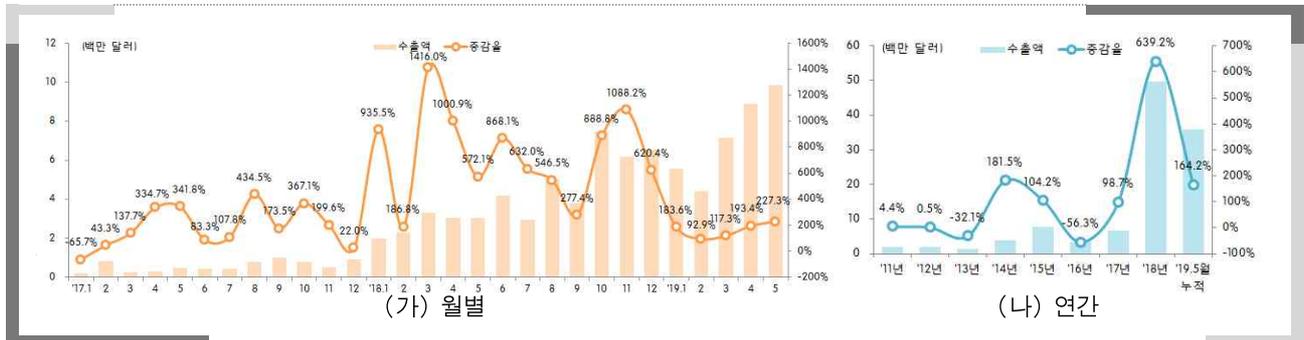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11) FTTH는 광케이블을 가정까지 연결해 ADSL(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보다 100배가량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

## □ (수출 동향) 對프랑스 광케이블 수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주목

- (전체) 국내 광케이블 업체의 수주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유망품목으로 부상
  - (월별) '17년엔 9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하회했으나 점차 확대되며 '18.1월 약 200만 달러 수준, '19.5월에는 약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며 사상최대 실적 기록
  - (연간) '15년 프랑스 4G 통신 서비스 및 지상파 HD TV 방송 도입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면서 7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2년간 700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수출이 둔화
  - 그러나 '18년 국내 업체의 광케이블 공급이 늘어나면서 5,000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19.5월 누적 수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164.2% 증가한 3,583만 달러로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광케이블 사업이 완료되는 '22~3년 이후까지는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그림 2-1 | 對프랑스 광케이블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비중) 전체 광케이블 수출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 (연간) 우리나라 광케이블 수출 중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년 2.6%로 10위 수출국에 랭크 됐으나, '18년 17.1%로 확대되며 1위국으로 부상. '19.5월 누적 기준으로는 32.1%로 크게 확대
  - (월별) '18.1월 9.7%에서 점차 늘어나면서 '19.3월 30% 돌파, '19.5월 44.0%까지 비중 확대

**그림 2-2 | 對프랑스 광케이블 수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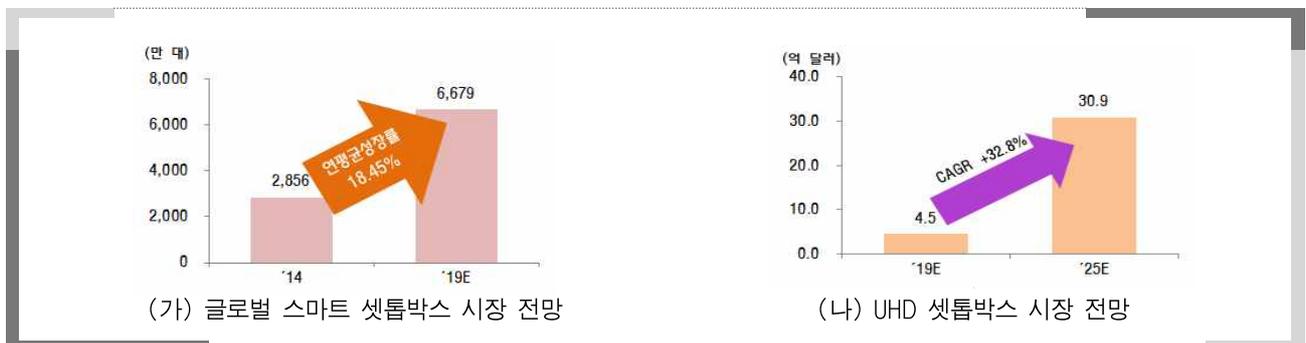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2 셋톱박스

### □ UHD급 고화질 콘텐츠 증가, OTT<sup>12)</sup>서비스 선호 등으로 셋톱박스 수요 확대가 기대

- (시장 전망) 스마트 셋톱박스 시장은 '18~'24년 동안 연평균 약 8%의 성장을 거듭하여 '24년에는 2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arizton, '19.6월)
  - 특히 UHD 셋톱박스의 경우 국내외 UHD TV 보급이 늘고 전용 콘텐츠가 확대됨에 따라 '19년 4억 4,700만 달러에서 '25년 30억 9,1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Global Market Research, 6.7일)
  - 개발도상국(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면서 IPTV 셋톱박스 수요가 확대되고 선진국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OTT 셋톱박스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 ※ 셋톱박스 수출 증감률(KTSPI, '19.5월) : 인도네시아(1.5만 달러, 606.7%↑), 독일(43만 달러, 18.9%↑)
- OTT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당 서비스를 탑재한 셋톱박스도 동반 성장할 전망
  - '14년엔 세계적으로 94%의 가구가 케이블 등을 통한 전통적인 TV만을 시청. 그러나 전통적인 TV 서비스 선호 가구 비중은 '19년 80%, '23년엔 68%로 축소 전망(뉴스토마토 5.22. 원소스 Ovum)
  - 점차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케이블, 위성 네트워크 등 전통적인 시청 형태를 넘어선 OTT 서비스 시장 성장이 기대
    - ※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은 '13년 179억 달러에서 올해는 5G 이동통신 확산에 힘입어 554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할 전망(더벨, 6.10. 원소스 SA)
  - 이에 업체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등) 출시와 함께 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OTT 서비스가 탑재된 셋톱박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그림 2-3 | 글로벌 스마트 셋톱박스 및 UHD 셋톱박스 시장 전망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7.9. / Global Market Research, 2019.6.

12) OTT(Over-The-Top)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초기에는 셋톱박스 기반으로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의미했으나 점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 광의적 의미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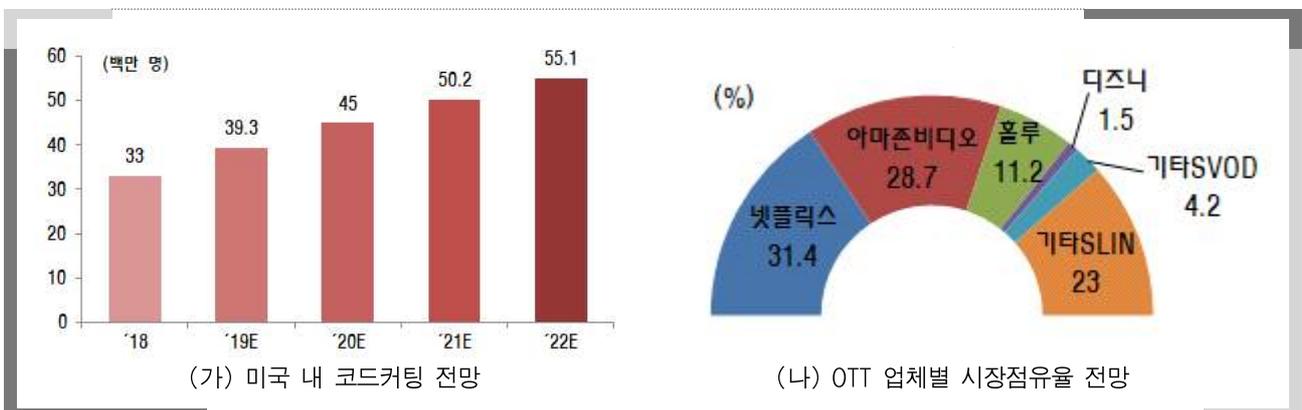
- 업체들은 성장하는 OTT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콘텐츠 확대에 투자를 집중
  - 미국의 '코드커팅(code cutting, 유료 방송을 끊고 OTT 서비스에 가입)' 인구는 '18.8월 기준 3,300만여 명에서 '22년 5,510만 명으로 불어날 전망(중앙시사매거진 5.7. 원소스 이마케터)
  - '18년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5억 5,600만 명을 기록한 반면 넷플릭스·홀루·아마존 등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자는 6억 1,3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7% 급증(중앙시사매거진 5.7. 원소스 IHS)

**< 업체별 OTT 서비스 동향 >**

업체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TV플러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며 OTT 진출을 공식화(3.25일)</li> <li>• 최근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총 25편 이상의 TV 프로그램을 확보한 상황</li> <li>- 올 초 미국에서 시작해 연말까지 100개가 넘는 국가로 공급을 확대해 온라인 TV 콘텐츠 서비스 사용자를 늘릴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연 매출의 4분의 3에 달하는 150억 달러(약 17조원)를 사용할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영화 제작사로 온라인 동영상 구독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하겠다고 발표(4.11일). 서비스 개시일은 11.12일로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li> <li>- 요금은 월 6.99 달러, 연 69 달러로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li> <li>• 올 3월에는 '사운드 오브 뮤직', '타이타닉', '심슨가족' 등의 IP를 가진 이십세기폭스를 713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자체 OTT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li> <li>- 미블 히어로 '윈터솔저', '스타워즈',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등 여러 콘텐츠의 시리즈도 준비 중</li> <li>• 또한 올해부터 '어벤져스' 등 현재 넷플릭스·구글·아마존 등에 공급 중인 콘텐츠의 판권을 순차적으로 거둬들여 디즈니 플러스에만 공급할 계획. 업계에서는 막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와의 시너지를 위해 홀루의 경영권을 100% 확보</li> <li>- 홀루는 디즈니, 이십세기폭스, NBC유니버설, AT&amp;T 등의 지분 투자로 설립된 OTT 플랫폼</li> <li>- 월트 디즈니가 컴캐스트 산하 NBC유니버설이 소유한 홀루 지분을 인수(5.14일)하면서 홀루 경영권을 완전 장악</li> <li>- 홀루는 다양한 콘텐츠와 2,800만 명('19.4월 유료 가입자 기준)의 이용자를 보유해 협력 시너지가 기대</li> <li>• 이어 월트디즈니와 컴캐스트는 실시간 채널 및 주문형 비디오(VoD) 라이선스 계약(컴캐스트 산하 NBC유니버설이 홀루와 맺은 계약)을 2024년까지 연장</li> <li>- 컴캐스트의 '엑스피니티(Xfinity) XI 셋톱박스'를 통해 홀루의 OTT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li> </ul>

자료 : 언론 자료 취합

**그림 2-4 | 미국 내 코드커팅 전망 및 OTT 업체별 시장점유율 전망**



자료 : 중앙시사매거진, 5.7.(원소스 이마케터, Ovum)

□ (업체 동향) 셋톱박스에 이용 가능한 콘텐츠 확대, 제품믹스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 (글로벌 업체) TV 시청 형태가 급변하면서 빠르게 확장 가능한 플랫폼과의 결합이 중요시되고 업체들은 더 많은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에 주력
  - 특히 아마존과 구글은 경쟁 업체로 서로의 셋톱박스에 경쟁 업체의 서비스(아마존은 유튜브, 구글은 프라임 비디오) 이용을 막아왔으나,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생을 위해 협력에 돌입

표 2-3 | 글로벌 OTT 서비스 업체 동향

업체명	주요 내용
 Ap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플은 올해 'WWDC 2019(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애플의 TV 셋톱박스인 '애플TV'에 탑재될 'tvOS13' 운영 체제를 공개해 콘텐츠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li> <li>- 'tvOS13'은 애플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오리지널 TV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능이 포함</li> <li>- 애플 TV의 홈 화면이 개선되고, 움직임에 따라 예고편도 재생돼 이용자의 편의성 확대</li> <li>- 다중 사용자 지원 기능을 탑재해 사용하는 콘텐츠 목록을 비롯해 선호하는 채널 등의 설정 저장 가능</li> <li>• 현재 애플TV 셋톱박스를 통해 훌루·ESPN 등 TV 프로그램을 공급 중인 상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이어 TV'(동영상 스트림 재생장치) 셋톱박스에 구글의 유튜브 앱 설치를 가능케 할 방침(4.18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의 셋톱 장치인 '크롬캐스트'에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 사용이 가능해 질 예정(4.18일)</li> <li>- 구글 유튜브 앱은 4K HDR 콘텐츠를 지원해 더욱 선명한 해상도로 영상 감상이 가능</li> </ul>

자료 : 언론 자료 취합

- (국내 업체) 기존 주력 해외 시장이었던 중동과 유럽에서 더 확장한 인도 등의 아시아 신흥 시장으로도 진출하면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
  -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교체되는 지역과의 셋톱박스 공급 계약으로 수주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셋톱박스에 AI 스피커 등의 기능을 결합해 IoT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품믹스를 통한 새로운 활로도 모색

표 2-4 | 국내의 셋톱박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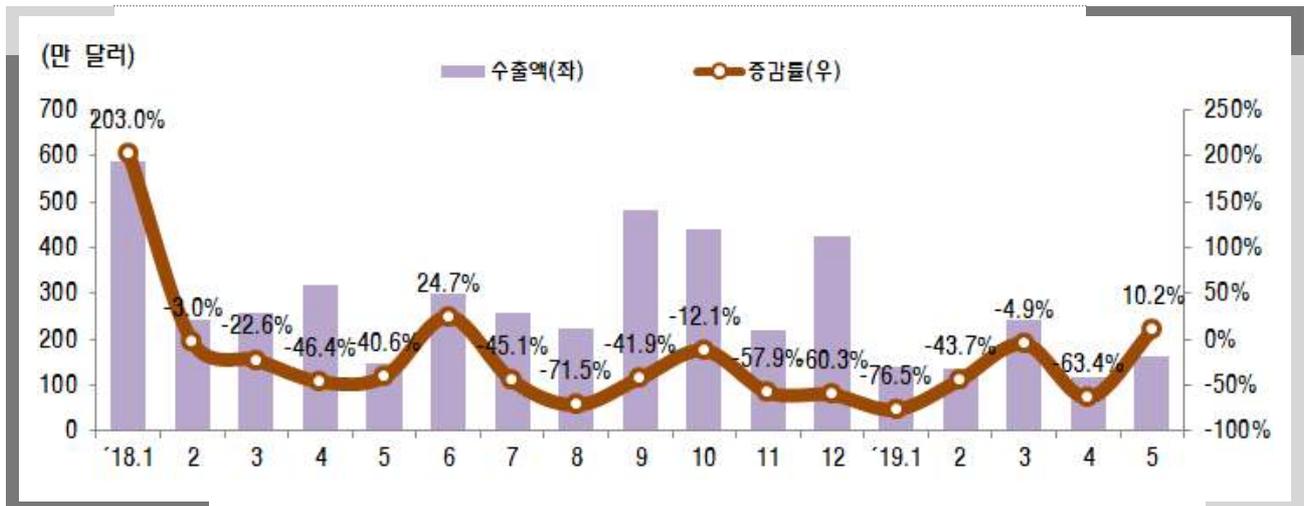
업체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TT 셋톱박스,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를 생산, 지난해 영업이익은 22억 원 규모</li> <li>• 유럽·중동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해 온 동사는 인도 등의 아시아 시장 개척도 진행 중</li> <li>- 매출액 중 국가별 점유율은 유럽(38.0%), 중동(37.3%), 북남미(18.1%), 러시아·독립국가연합(6.0%), 아시아(0.6%) 등의 순(더블 6.10.)</li> <li>- 점유율이 1%에 미치지 않는 日·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판로 확대에 집중</li> <li>- 한편 중국은 해외 업체의 셋톱박스 유통을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장기 품질 보증기간 등으로 진입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지리아와 240억 원('18년 매출액 대비 52.38%) 규모의 셋톱박스 공급계약 수주에 성공(4.26일)</li> <li>- 나이지리아 '디지털 스위치 오버 프로젝트'에 참여해 '20.2월까지 셋톱박스를 공급할 예정</li> <li>- '19.6월부터 1차 20만 대를 시작으로 매달 10만 대씩 공급해 총 100만 대를 공급할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초 음성인식 AI '기가지니'를 '17.1월부터 KT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SK 브로드밴드에도 관련 제품인 'NUGU'를 납품 중인 상황</li> <li>- 고부가가치 제품인 AI 셋톱박스 매출 비중은 27%에 육박, 제품 믹스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li> <li>• 지난 해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32%), 미주(25%), 유럽(25%), 아시아(14%), 중동 및 아프리카(4%) 등으로 수출(하이투자증권)</li> </ul>

자료 : 언론 자료 취합

## □ (수출 동향) '18.6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19.5월 상승세로 반등

- (전체) 개도국의 디지털 방송, 초고화질(UHD) 동영상 수요 확대 등으로 회복세 진입
  - 선진국의 초고화질 콘텐츠 증가,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방송 전환, 셋톱박스를 통한 홈 IoT 연계 등으로 '19.5월 셋톱박스 수출액은 10.2% 증가(160만 달러)하며 전월 대비 상승 반전

그림 2-5 | 셋톱박스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선진국인 독일·일본 등으로의 수출 상승세가 관측되는 가운데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는 네덜란드·UAE 또한 큰 폭으로 증가
  - 유럽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가장 좋은 네덜란드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영상 콘텐츠가 잘 구성되어 있는 UAE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큰 폭의 상승세
  - 일본은 '18.12월부터 위성방송을 통한 UHD 방송 개시 영향으로 성장세를 유지. 수출 비중이 2번째로 높은 독일도 3월부터 꾸준한 오름세가 관측

표 2-5 | 셋톱박스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18년 연간				2019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1~5월 누적		
순위									금액	증감률	비중
1	독일	8.3	-14.2	21.4	네덜란드	0.7	3,617,161	40.2	1.2	2,493,965	15.4
2	인도네시아	5.0	227.2	12.8	독일	0.4	18.9	26.4	1.5	61.6	18.5
3	UAE	4.8	-78.9	12.3	UAE	0.2	30,398	11.7	0.7	-80.2	9.0
4	베트남	3.5	67.5	8.9	베트남	0.1	-78.9	4.9	1.2	178.9	15.1
5	미국	3.2	424	8.2	일본	0.1	71.7	3.2	0.1	-89.5	0.9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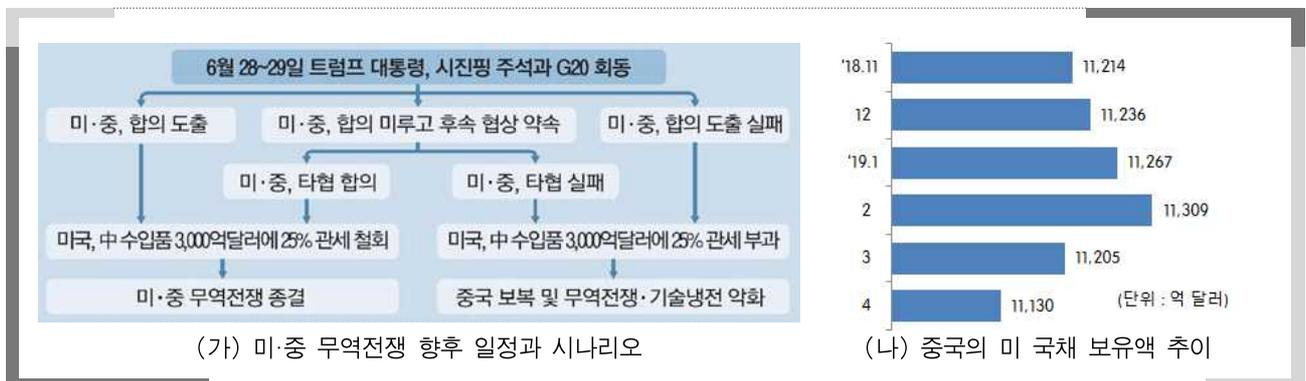


### 3 Ex-Briefing

#### □ 미·중, G20회의에서 정상회담 계획...양국간 압박 수위 확대로 난항이 예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6.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6.18일). 중국도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하면서, 향후 무역 분쟁에 대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 확대
  - 하지만 양국간 문제가 무역부터 기술 냉전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얽혀 있어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19.6월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중 정상이 G20에서 만나도 최상의 성과는 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재개하지는 합의 정도일 것”이라며 전격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을 일축
  - 한편 합의에 실패할 경우 '20년 미국 대선까지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국제금융센터, '19.6월)
-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한편 양국은 추가 관세 리스트 작업, 희토류 등 수출 제한 대책 마련 등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 (미국) 화웨이 문제 등을 놓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작업도 병행
    - \* 미국 USTR는 6.17일부터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 이후 일주일간 의견을 서면 접수하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
  - (중국) 보유 국채가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미국 국채 매각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수출 제한 대책 등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림 2-6 |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 및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 추이



자료 : 매일경제, 2019.6.19. / 서울경제, 2019.6.18.(원소스 블룸버그)

## □ 글로벌 경제 뿐 아니라 美 기업에도 타격이 예상되면서 중국 제재 완화 요구가 확대

- 미·중간 무역 갈등 심화로 무역·투자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며 글로벌 경제가 축소
  -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7월 3.9%→'19.4월 3.3%까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G2의 무역 갈등으로 '20년 세계 GDP가 최대 0.5% 축소(4,550억 달러)될 것으로 분석
  - '18년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무역전쟁의 격화로 시장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이 위축되면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해 전년 대비 13% 급감한 1조 3,000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UNCTAD, '19.6월)
- 특히 무역 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한국·일본·대만 등 수출 의존이 높은 국가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는 분석 제기(무디스애널리틱스, '19.6월)
  -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3국에 중국은 거대한 소비 시장일 뿐 아니라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거대 조립 공장으로서, 중국 내수와 공급 망에 긴밀히 연계돼 있어 위협에 노출돼 타격이 클 전망
  - '19.5월 미·중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일본·대만 증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 이들 3국 증시의 회복 여부는 향후 수 주 간 미·중 갈등 해결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예측
- 한편 추가 관세에 휴대폰·노트북컴퓨터 등 소비재가 포함되면서 미국 기업은 정부에 규제 완화 요구 및 생산기지 중국 이탈을 추진
  - 월마트·코스트코·타깃·갭·리바이스 등 미국 대형 유통·제조·소매업체와 단체 661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관세 폭탄' 전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6.13일)했으며 인텔·퀄컴 등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화웨이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애플의 최대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중국 내 애플 제품 생산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구글도 일부 하드웨어 생산기지를 대만·말레이시아 등 중국 밖으로 이전하는 등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기업들의 脫중국 본격화
  - ※ 폭스콘은 중국 외 브라질·멕시코·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체코·미국·호주 등에 전체 생산라인의 25%를 보유

**그림 2-7 |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변화 및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이탈**



자료 : IMF(가로축 시점 기준) / 아시아경제 재인용, 2019.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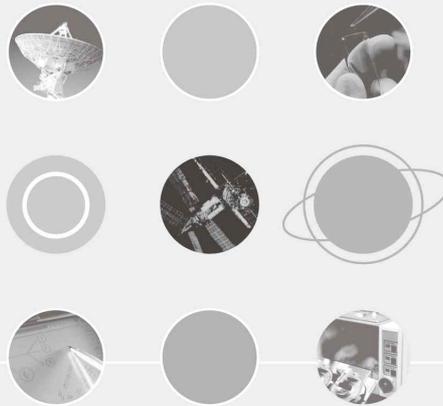
## □ 중남미·EU 등 일부 국가에서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 이탈 움직임이 포착

- 중남미 국가들은 지지층 이탈, 신규 5G 통신망 구축에 따른 비용 및 시간 증가 등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방침에 쉽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미국은 동맹국을 비롯한 각국에 국가 안보 우려를 들어 화웨이 5G 기술 도입 중단을 촉구
  - (브라질) 아미우톤 모우랑 브라질 부통령은 중국 화웨이 기술의 차세대 이동통신 5G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배제 요구를 거부한다는 의향을 표명(6.7일). 브라질에 진출한 중국기업에 관한 불신은 없고 브라질은 필요한 5G 기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중남미 우방으로 여겨져 온 브라질 부대통령의 발언은 브라질 정부가 경제면에 있어 실리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
    - ※ 중남미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화웨이와 대적할만한 통신장비 업체는 없으며, 삼성·에릭슨·노키아 등 다른 대안은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FT, 머니투데이, '19.6월)
  - 일각에서는 브라질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적대적 관계가 될 경우 지지층(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주 지지층은 농민)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
    - ※ '17년 브라질의 대중국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6조 8,900억 원)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
  - (멕시코) 현재 멕시코의 통신망은 아메리카 모빌과 AT&T가 차지하고 있지만, 망을 구축하는 기기 중 대다수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봉쇄 전략을 따라 타 업체의 통신장비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 '23년까지 5G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칠레)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19.4월 중국 선전을 방문해 칠레의 5G 기술·광케이블 프로젝트 관련 화웨이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화웨이 제재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
- 한편 유럽에서는 중국 통신기술 없이 5G망을 구축할 경우 유럽 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화웨이 제재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 촉발
  -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설비 도입을 금지할 경우 유럽 5G 통신망 구축비용은 기존 대비 550억 유로(약 73조 4,3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GSMA, '19.6월)
    - ※ 유럽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와 ZTE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인 것으로 추정
  - 또한 타 통신설비 사용시 유럽 내 5G 네트워크 개통 기한이 최대 18개월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
  - GSMA의 이번 보고서로 안전보장을 이유로 화웨이의 제품을 배제하도록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일부 유럽국 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III

## 부록





### III 부록

##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4,716,630	9.4	100.0	421,130	-5.8	100.0	4,972,994	5.4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427,552	10.9	72.7	288,084	-8.8	68.4	3,655,480	6.6	73.5
- 전자부품	2,190,080	21.9	46.4	188,131	-10.3	44.7	2,373,194	8.4	47.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3,143	14.4	2.4	7,621	-37.0	1.8	119,800	5.9	2.4
- 통신 및 방송기기	442,645	-14.3	9.4	31,255	-13.9	7.4	436,185	-1.5	8.8
- 영상 및 음향기기	99,406	-14.7	2.1	6,662	-16.5	1.6	90,244	-9.2	1.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82,277	3.9	12.3	54,415	9.5	12.9	636,057	9.2	12.8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48,828	3.0	15.9	64,270	0.0	15.3	762,231	1.8	15.3
- 통신서비스	380,211	0.0	8.1	29,888	-6.3	7.1	372,638	-2.0	7.5
· 유선통신서비스	105,830	-0.4	2.2	8,587	-3.5	2.0	103,622	-2.1	2.1
· 무선통신서비스	252,562	0.3	5.4	19,431	-8.1	4.6	246,886	-2.2	5.0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819	-1.2	0.5	1,871	1.7	0.4	22,130	1.4	0.4
- 방송서비스	175,707	3.4	3.7	16,378	4.5	3.9	183,588	4.5	3.7
· 지상파방송서비스	36,952	-7.8	0.8	3,226	-2.4	0.8	35,674	-3.5	0.7
· 유료방송서비스	56,332	9.1	1.2	5,473	10.9	1.3	62,655	11.2	1.3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81,888	5.6	1.7	7,637	3.4	1.8	84,749	3.5	1.7
- 정보서비스	192,910	9.0	4.1	18,004	7.6	4.3	206,005	6.8	4.1
· 정보인프라서비스	36,782	4.2	0.8	3,378	6.5	0.8	38,488	4.6	0.8
· 정보매개서비스	38,949	25.0	0.8	3,963	10.7	0.9	45,377	16.5	0.9
· 정보제공서비스	117,179	6.1	2.5	10,663	6.9	2.5	122,140	4.2	2.5
○ 소프트웨어	540,251	9.5	11.5	68,776	2.8	16.3	555,283	2.8	11.2
- 패키지 소프트웨어	88,520	17.1	1.9	12,516	11.3	3.0	94,505	6.8	1.9
- 게임 소프트웨어	114,365	14.1	2.4	12,161	3.0	2.9	121,004	5.8	2.4
- IT 서비스	337,366	6.2	7.2	44,099	0.5	10.5	339,774	0.7	6.8

자료 : KEA, KAIT, 2019.5.

## 2 2019년 5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07년	3,714.9	1,301.0	13.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51.7	2,203.6	11.5	5,351.7	1,071.0	4.9	700.0	1,132.6
1/4분기	1,450.6	523.1	18.9	1,323.9	262.3	10.3	126.7	260.8
2/4분기	1,516.2	546.4	16.7	1,331.4	260.3	5.0	184.8	286.1
3/4분기	1,536.5	590.0	12.5	1,303.2	257.4	-0.8	233.2	332.5
4/4분기	1,548.4	544.1	0.2	1,393.2	290.9	5.6	155.2	253.2
상반기	2,966.8	1,069.5	17.7	2,655.3	522.6	7.6	311.6	546.9
하반기	3,084.9	1,134.1	6.3	2,696.5	548.4	2.5	388.4	585.7
1월	492.2	176.9	28.0	457.9	93.4	19.7	34.3	83.5
2월	445.2	156.8	11.6	417.0	78.3	7.1	28.3	78.5
3월	513.1	189.4	17.4	448.9	90.6	4.5	64.2	98.7
4월	498.5	170.3	9.6	436.9	86.7	9.9	61.6	83.6
5월	506.9	185.0	20.1	444.5	87.3	9.0	62.4	97.7
6월	510.8	191.1	20.3	450.0	86.3	-2.9	60.8	104.9
7월	518.2	185.5	18.2	449.4	91.0	9.8	68.7	94.5
8월	511.8	201.7	15.4	443.5	86.5	0.5	68.3	115.2
9월	506.5	202.7	5.3	410.2	79.9	-11.7	96.2	122.8
10월	548.9	201.9	12.2	484.8	100.3	10.2	64.1	101.6
11월	515.8	182.9	-1.7	468.1	97.6	3.0	47.7	85.2
12월	483.8	159.3	-10.0	440.4	93.0	3.6	43.4	66.4
2019년	1,815.9	581.8	-16.1	1,681.5	353.7	1.3	134.4	228.1
1/4분기	1,327.3	429.6	-17.9	1,234.1	258.9	-1.3	93.2	170.7
1월	463.5	144.7	-18.2	450.2	94.0	0.7	13.4	50.6
2월	395.6	127.0	-19.0	364.7	72.9	-6.9	31.0	54.1
3월	471.1	158.5	-16.3	418.9	91.9	1.4	52.2	66.5
4월	488.6	152.2	-10.6	447.4	94.8	9.4	41.2	57.4
5월	459.1	143.1	-22.6	436.4	96.8	10.8	22.7	46.3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0,340	11.5	100.0	14,310	-22.6	100.0	72,440	-17.5	100.0
○전자부품	166,047	18.3	75.4	10,087	-26.9	70.5	52,298	-20.0	72.2
- 반도체	128,145	28.6	58.2	7,659	-30.0	53.5	39,738	-21.8	54.9
· 메모리반도체	94,078	40.1	42.7	5,266	-35.8	36.8	26,937	-26.5	37.2
· 시스템반도체	26,466	4.4	12.0	1,842	-13.1	12.9	9,990	-8.4	13.8
- 디스플레이	27,760	-8.4	12.6	1,626	-21.5	11.4	8,614	-18.0	11.9
- 전자관	7	11.9	0.0	0	-52.0	0.0	2	1.7	0.0
- 수동부품	2,049	10.9	0.9	158	-3.2	1.1	801	1.2	1.1
PCB	4,996	-9.6	2.3	385	1.4	2.7	1,903	-4.7	2.6
- 접속부품	2,841	3.5	1.3	240	2.7	1.7	1,153	-0.1	1.6
- 기타전자부품	180	-0.3	0.1	12	-18.8	0.1	62	-17.0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69	17.4	5.1	704	-25.3	4.9	3,263	-31.1	4.5
- 컴퓨터	1,537	23.4	0.7	171	78.8	1.2	868	76.1	1.2
- 주변기기	9,732	16.5	4.4	533	-37.1	3.7	2,395	-43.5	3.3
· 디스플레이장치	1,142	9.4	0.5	81	-14.5	0.6	420	-11.5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538	-17.3	0.2	35	-18.7	0.2	192	-5.9	0.3
· 보조기억장치	7,205	19.9	3.3	369	-42.4	2.6	1,525	-53.6	2.1
○통신 및 방송기기	17,576	-22.3	8.0	1,118	-32.1	7.8	5,624	-24.3	7.8
- 통신기기	17,150	-23.0	7.8	1,088	-32.4	7.6	5,479	-24.4	7.6
· 유선통신기기	959	17.6	0.4	66	-10.3	0.5	333	-14.5	0.5
· 무선통신기기	16,191	-24.5	7.3	1,022	-33.5	7.1	5,146	-25.0	7.1
휴대폰(부분품 포함)	14,596	-23.3	6.6	927	-33.9	6.5	4,681	-24.2	6.5
- 방송용 장비	426	20.9	0.2	30	-19.6	0.2	145	-18.0	0.2
○영상 및 음향기기	3,079	-18.8	1.4	422	76.9	2.9	1,981	52.4	2.7
- 영상기기	2,059	-22.2	0.9	340	121.7	2.4	1,562	74.1	2.2
· TV	1,645	-27.3	0.7	308	158.8	2.2	1,405	95.1	1.9
LCD TV	447	-27.0	0.2	35	-13.9	0.2	183	-33.1	0.3
TV 부분품	1,026	-29.3	0.5	265	352.7	1.9	1,172	230.8	1.6
· 셋탑박스	39	-35.3	0.0	2	10.2	0.0	8	-48.6	0.0
- 음향기기	969	-9.9	0.4	78	-3.2	0.5	402	6.1	0.6
- 기타 영상음향기기	52	-27.5	0.0	3	-20.6	0.0	17	-27.3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369	5.3	10.2	1,979	6.3	13.8	9,274	2.9	12.8
-가정용전기기기	3,568	-17.3	1.6	341	5.0	2.4	1,535	-3.3	2.1
-사무용기기	263	11.0	0.1	30	23.1	0.2	147	29.6	0.2
-의료용기기	2,084	8.9	0.9	185	16.4	1.3	841	5.8	1.2
-전기 장비	10,433	15.0	4.7	878	3.5	6.1	4,400	7.2	6.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334	21.7	3.3	624	4.4	4.4	3,160	10.8	4.4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07,119	4.9	100.0	9,679	10.8	100.0	45,053	3.2	100.0
○전자부품	58,630	7.8	54.7	5,487	17.9	56.7	24,357	4.1	54.1
- 반도체	44,946	8.5	42.0	4,590	34.1	47.4	19,785	11.8	43.9
· 메모리반도체	16,269	32.0	15.2	2,330	134.9	24.1	8,778	53.9	19.5
· 시스템반도체	21,406	-5.0	20.0	1,636	-12.6	16.9	8,063	-10.4	17.9
- 디스플레이	6,744	10.1	6.3	360	-47.0	3.7	1,866	-36.1	4.1
- 전자관	66	-1.4	0.1	2	-47.8	0.0	18	-30.0	0.0
- 수동부품	2,047	11.8	1.9	163	-5.1	1.7	807	1.4	1.8
PCB	2,228	-7.1	2.1	162	1.7	1.7	821	-4.1	1.8
- 접속부품	2,232	1.8	2.1	180	-1.5	1.9	915	-2.6	2.0
- 기타전자부품	276	5.0	0.3	24	-13.9	0.2	111	-3.0	0.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50	8.2	12.0	852	-24.1	8.8	5,000	-14.5	11.1
- 컴퓨터	6,618	7.1	6.2	487	-2.8	5.0	3,132	4.4	7.0
- 주변기기	6,232	9.3	5.8	366	-41.2	3.8	1,868	-34.4	4.1
· 디스플레이장치	743	2.6	0.7	58	-10.2	0.6	297	-6.8	0.7
· 프린터(부분품포함)	928	-9.5	0.9	71	-12.0	0.7	405	-0.9	0.9
· 보조기억장치	3,488	34.1	3.3	164	-58.3	1.7	782	-53.7	1.7
○통신 및 방송기기	13,914	-11.7	13.0	1,290	29.9	13.3	5,912	11.5	13.1
- 통신기기	13,636	-11.9	12.7	1,263	29.7	13.1	5,779	11.2	12.8
· 유선통신기기	1,783	3.4	1.7	203	47.7	2.1	875	34.2	1.9
· 무선통신기기	11,853	-13.8	11.1	1,061	26.7	11.0	4,903	7.9	10.9
휴대폰(부분품 포함)	10,041	-17.4	9.4	755	7.3	7.8	3,738	-3.8	8.3
- 방송용 장비	278	-2.2	0.3	26	40.2	0.3	133	28.9	0.3
○영상 및 음향기기	3,021	5.2	2.8	408	57.9	4.2	2,115	70.5	4.7
- 영상기기	1,461	12.1	1.4	286	146.2	3.0	1,492	162.9	3.3
· TV	941	20.9	0.9	244	241.4	2.5	1,273	258.1	2.8
LCD TV	618	-2.6	0.6	42	-28.3	0.4	279	-4.0	0.6
TV 부분품	217	202.9	0.2	192	3,354.4	2.0	940	3,361.4	2.1
· 셋탑박스	130	12.0	0.1	15	3.3	0.2	68	18.1	0.2
- 음향기기	1,206	-6.7	1.1	99	-7.8	1.0	495	-3.6	1.1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29.0	0.3	22	-35.4	0.2	128	-19.6	0.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8,703	9.0	17.5	1,643	-3.8	17.0	7,669	-2.5	17.0
-가정용전기기기	3,495	18.8	3.3	383	2.2	4.0	1,584	8.3	3.5
-사무용기기	36	-3.3	0.0	4	54.6	0.0	21	19.3	0.0
-의료용기기	1,945	11.7	1.8	170	8.7	1.8	869	14.1	1.9
-전기 장비	5,786	16.6	5.4	500	-4.6	5.2	2,290	-10.3	5.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204	42.7	2.1	213	12.2	2.2	954	6.4	2.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5월 당월			5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0,340	107,119	113,222	14,310	9,679	4,630	27,387
○전자부품	166,047	58,630	107,417	10,087	5,487	4,600	27,941
- 반도체	128,145	44,946	83,199	7,659	4,590	3,069	19,953
· 메모리반도체	94,078	16,269	77,809	5,266	2,330	2,936	18,159
· 시스템반도체	26,466	21,406	5,061	1,842	1,636	205	1,927
- 디스플레이	27,760	6,744	21,015	1,626	360	1,266	6,748
- 전자관	7	66	-59	0	2	-2	-16
- 수동부품	2,049	2,047	2	158	163	-4	-6
PCB	4,996	2,228	2,767	385	162	224	1,082
- 접속부품	2,841	2,232	609	240	180	60	238
- 기타전자부품	180	276	-96	12	24	-11	-49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69	12,850	-1,581	704	852	-148	-1,737
- 컴퓨터	1,537	6,618	-5,081	171	487	-316	-2,264
- 주변기기	9,732	6,232	3,500	533	366	167	527
· 디스플레이장치	1,142	743	399	81	58	23	123
· 프린터(부분품포함)	538	928	-389	35	71	-35	-213
· 보조기억장치	7,205	3,488	3,716	369	164	205	744
○통신 및 방송기기	17,576	13,914	3,662	1,118	1,290	-172	-288
- 통신기기	17,150	13,636	3,514	1,088	1,263	-175	-300
· 유선통신기기	959	1,783	-824	66	203	-136	-543
· 무선통신기기	16,191	11,853	4,338	1,022	1,061	-39	24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596	10,041	4,555	927	755	173	942
- 방송용 장비	426	278	148	30	26	4	12
○영상 및 음향기기	3,079	3,021	59	422	408	14	-134
- 영상기기	2,059	1,461	597	340	286	54	70
· TV	1,645	941	705	308	244	65	132
LCD TV	447	618	-171	35	42	-7	-96
TV 부분품	1,026	217	809	265	192	73	231
· 셋탑박스	39	130	-91	2	15	-13	-60
- 음향기기	969	1,206	-238	78	99	-21	-94
- 기타 영상음향기기	52	353	-301	3	22	-19	-11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369	18,703	3,666	1,979	1,643	336	1,605
- 가정용전기기기	3,568	3,495	73	341	383	-42	-50
- 사무용기기	263	36	228	30	4	26	126
- 의료용기기	2,084	1,945	140	185	170	15	-28
- 전기 장비	10,433	5,786	4,647	878	500	378	2,11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334	2,204	5,131	624	213	412	2,206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220,340	11.5	100.0	14,310	-22.6	100.0	72,440	-17.5	100.0
○ 아시아	175,975	12.9	79.9	10,981	-25.3	76.7	56,002	-20.5	77.3
- 중국(홍콩포함)	119,353	14.4	54.2	7,120	-31.5	49.8	35,529	-26.5	49.0
- 일 본	4,342	4.2	2.0	374	3.5	2.6	1,683	-8.0	2.3
- ASEAN	41,549	7.8	18.9	2,760	-10.1	19.3	15,340	-7.2	21.2
· 싱가포르	3,440	-7.7	1.6	250	-14.6	1.7	1,274	-14.7	1.8
· 인 니	886	16.3	0.4	83	12.3	0.6	406	6.3	0.6
· 말 련	1,959	9.1	0.9	122	-32.5	0.9	728	-7.6	1.0
· 태 국	1,202	-13.5	0.5	86	-13.3	0.6	456	-8.6	0.6
· 베트남	27,887	8.1	12.7	1,915	1.6	13.4	10,861	0.4	15.0
- 대 만	7,670	41.7	3.5	437	-30.3	3.1	2,104	-19.3	2.9
- 인 도	2,729	-12.8	1.2	251	13.3	1.8	1,207	16.9	1.7
○ 북미	21,628	15.0	9.8	1,574	-15.5	11.0	8,010	1.7	11.1
- 미 국	20,541	13.2	9.3	1,484	-15.5	10.4	7,621	1.3	10.5
- 캐나다	971	94.6	0.4	83	-14.5	0.6	350	14.7	0.5
○ 유럽	13,170	11.9	6.0	948	-15.5	6.6	4,875	-8.7	6.7
- EU	11,822	14.1	5.4	852	-16.0	6.0	4,417	-6.9	6.1
· 영 국	483	-21.1	0.2	41	11.6	0.3	202	-4.7	0.3
· 독 일	3,398	20.4	1.5	232	-34.2	1.6	1,126	-15.9	1.6
· 프랑스	927	39.9	0.4	70	-8.5	0.5	416	14.3	0.6
· 이탈리아	319	10.0	0.1	23	-22.5	0.2	128	-4.7	0.2
- 러시아	637	-3.2	0.3	47	13.6	0.3	241	0.8	0.3
○ 중동	2,373	-30.4	1.1	163	-27.5	1.1	804	-32.6	1.1
- 사우디	282	-29.2	0.1	18	-39.0	0.1	97	-26.3	0.1
- UAE	554	-39.0	0.3	36	-42.3	0.3	186	-39.3	0.3
○ 중남미	5,942	-9.4	2.7	508	1.1	3.6	2,222	-10.5	3.1
- 브라질	1,982	-21.6	0.9	186	-4.6	1.3	768	-22.1	1.1
- 멕시코	3,290	-2.8	1.5	278	5.2	1.9	1,208	-2.1	1.7
- 칠 레	95	-12.7	0.0	7	-29.2	0.0	37	-7.7	0.1
○ 대양주	754	2.1	0.3	97	72.0	0.7	351	8.3	0.5
- 호 주	661	0.5	0.3	92	82.7	0.6	316	10.5	0.4
○ 아프리카	490	35.2	0.2	38	9.5	0.3	175	-2.7	0.2
※ 브릭스	86,960	9.2	39.5	5,290	-29.2	37.0	27,102	-23.3	37.4

자료 : IITP, KTSPI



**표 3-7 |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5월 당월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07,119	4.9	100.0	9,679	10.8	100.0	45,053	3.2	100.0
○ 아시아	87,716	5.7	81.9	8,262	15.7	85.4	36,939	3.2	82.0
- 중국(홍콩포함)	45,930	10.6	42.9	3,783	3.5	39.1	19,035	3.5	42.2
- 일 본	10,882	-3.9	10.2	777	-3.4	8.0	4,066	-10.6	9.0
- ASEAN	18,847	7.8	17.6	1,516	-4.8	15.7	8,013	2.1	17.8
· 싱가포르	3,329	-3.8	3.1	199	-28.8	2.1	1,090	-16.3	2.4
· 인 니	421	2.1	0.4	36	-21.5	0.4	192	-1.5	0.4
· 말 련	3,389	10.1	3.2	238	-17.6	2.5	1,270	-10.8	2.8
· 태 국	1,360	-16.1	1.3	110	-15.6	1.1	526	-10.2	1.2
· 베트남	8,556	19.4	8.0	678	-7.5	7.0	3,997	7.7	8.9
- 대 만	11,940	-5.1	11.1	830	-23.3	8.6	4,429	-10.8	9.8
- 인 도	108	-7.2	0.1	8	-10.6	0.1	48	-3.6	0.1
○ 북미	8,978	-7.0	8.4	741	-9.4	7.7	3,753	-4.4	8.3
- 미 국	8,630	-7.1	8.1	716	-9.4	7.4	3,620	-4.2	8.0
- 캐나다	216	-3.3	0.2	16	8.9	0.2	85	-2.2	0.2
○ 유럽	7,016	-2.5	6.5	553	-2.7	5.7	2,860	2.0	6.3
- EU	6,627	-1.9	6.2	519	-3.1	5.4	2,686	1.6	6.0
· 영 국	522	5.6	0.5	36	-7.8	0.4	207	3.1	0.5
· 독 일	2,944	-0.8	2.7	214	-6.1	2.2	1,098	-7.2	2.4
· 프랑스	724	-3.8	0.7	63	14.7	0.7	316	13.7	0.7
· 이탈리아	314	6.2	0.3	29	11.9	0.3	137	13.7	0.3
- 러시아	17	-13.3	0.0	1	-26.0	0.0	7	-12.9	0.0
○ 중동	620	-1.1	0.6	36	-26.2	0.4	153	-48.6	0.3
- 사우디	2	-58.2	0.0	0	-98.6	0.0	0	-84.3	0.0
- UAE	86	-24.7	0.1	5	-5.8	0.0	27	-23.8	0.1
○ 중남미	779	1.1	0.7	72	20.6	0.7	376	20.2	0.8
- 브라질	13	-46.1	0.0	1	7.6	0.0	4	-37.3	0.0
- 멕시코	761	3.0	0.7	71	21.2	0.7	366	20.3	0.8
- 칠 레	2	13.9	0.0	0	-100.0	0.0	1	-8.3	0.0
○ 대양주	105	6.0	0.1	11	24.0	0.1	56	45.9	0.1
- 호 주	73	9.4	0.1	9	72.9	0.1	43	72.5	0.1
○ 아프리카	57	-13.8	0.1	4	-19.4	0.0	22	-13.1	0.0
※ 브릭스	44,726	10.6	41.8	3,755	6.0	38.8	18,620	4.4	41.3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수출	수입	수지	5월 당월			1~5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0,340	107,119	113,222	14,310	9,679	4,630	27,387
○ 아시아	175,975	87,716	88,259	10,981	8,262	2,719	19,063
- 중국(홍콩포함)	119,353	45,930	73,422	7,120	3,783	3,337	16,494
- 일 본	4,342	10,882	-6,539	374	777	-403	-2,383
- ASEAN	41,549	18,847	22,702	2,760	1,516	1,243	7,327
· 싱가포르	3,440	3,329	111	250	199	51	184
· 인 니	886	421	465	83	36	46	214
· 말 련	1,959	3,389	-1,430	122	238	-116	-542
· 태 국	1,202	1,360	-157	86	110	-24	-70
· 베트남	27,887	8,556	19,331	1,915	678	1,237	6,864
- 대 만	7,670	11,940	-4,270	437	830	-393	-2,325
- 인 도	2,729	108	2,621	251	8	244	1,159
○ 북미	21,628	8,978	12,650	1,574	741	833	4,257
- 미 국	20,541	8,630	11,911	1,484	716	769	4,001
- 캐나다	971	216	755	83	16	66	265
○ 유럽	13,170	7,016	6,154	948	553	395	2,015
- EU	11,822	6,627	5,195	852	519	333	1,731
· 영 국	483	522	-39	41	36	5	-5
· 독 일	3,398	2,944	454	232	214	18	28
· 프랑스	927	724	202	70	63	7	100
· 이탈리아	319	314	4	23	29	-6	-10
- 러시아	637	17	620	47	1	46	235
○ 중동	2,373	620	1,754	163	36	127	652
- 사우디	282	2	280	18	0	18	97
- UAE	554	86	468	36	5	32	159
○ 중남미	5,942	779	5,163	508	72	436	1,846
- 브라질	1,982	13	1,968	186	1	185	764
- 멕시코	3,290	761	2,529	278	71	206	842
- 칠 레	95	2	93	7	0	7	36
○ 대양주	754	105	649	97	11	86	295
- 호 주	661	73	588	92	9	83	273
○ 아프리카	490	57	433	38	4	34	153
※ 브릭스	86,960	44,726	42,234	5,290	3,755	1,535	8,482

자료 : IITP, KTSPI



###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9,374	8.4	100.0	762	5.8	100.0	2,058	-0.8	100.0
○ 전자부품	2,334	15.2	24.9	206	4.5	27.1	553	4.1	26.9
- 반도체	1,622	24.5	17.3	144	5.3	19.0	390	7.3	18.9
- 디스플레이 패널	251	-17.3	2.7	24	-4.4	3.2	63	-6.3	3.1
- 전자관	1	-28.2	0.0	0	5.5	0.0	0	1.4	0.0
- 수동부품	96	14.7	1.0	7	-5.1	1.0	20	-2.1	1.0
- PCB	153	9.3	1.6	13	2.6	1.7	33	-3.2	1.6
- 접속부품	185	7.7	2.0	15	21.0	2.0	42	3.5	2.0
- 기타 전자부품	26	13.8	0.3	2	7.7	0.3	6	-5.9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99	7.4	20.3	159	0.5	20.9	417	1.5	20.2
- 컴퓨터	1,248	10.5	13.3	103	-2.3	13.5	270	1.9	13.1
- 주변기기	652	1.9	7.0	56	5.9	7.4	147	0.9	7.2
· 디스플레이장치	154	9.3	1.6	13	17.2	1.8	36	5.1	1.7
· 프린터(부품포함)	172	-2.8	1.8	14	-2.8	1.8	38	-8.5	1.8
· 보조기억장치	178	-4.8	1.9	16	-3.0	2.1	40	0.6	2.0
· 저장 매체	32	6.9	0.3	3	12.3	0.4	7	5.6	0.4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16	10.6	1.2	10	19.9	1.4	26	10.4	1.3
○ 통신 및 방송기기	2,544	9.3	27.1	182	-0.3	24.0	503	-10.4	24.4
- 통신기기	2,437	9.0	26.0	175	-0.4	23.0	482	-10.5	23.4
· 유선통신기기	444	15.9	4.7	39	27.5	5.1	104	18.7	5.0
· 무선통신기기	1,993	7.5	21.3	136	-6.2	17.9	379	-16.2	18.4
- 방송국용 기기	108	17.6	1.1	7	0.4	1.0	21	-5.8	1.0
○ 영상 및 음향기기	677	-3.0	7.2	48	6.0	6.3	129	-9.2	6.3
- 영상기기	351	2.1	3.7	26	4.6	3.5	73	-5.3	3.5
- 음향기기	214	-2.6	2.3	15	3.5	2.0	41	-10.6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16.7	1.2	7	18.6	0.9	15	-21.5	0.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20	5.1	20.5	165	22.1	21.7	456	6.1	22.2
- 가정용 기기	727	10.1	7.8	65	17.7	8.6	175	5.4	8.5
- 사무용 기기	41	0.3	0.4	3	22.2	0.5	10	8.9	0.5
- 의료용 기기	92	2.8	1.0	9	29.4	1.2	24	12.3	1.2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75	-1.9	1.9	16	12.3	2.1	43	2.6	2.1
- 전기 장비	885	3.3	9.4	71	28.2	9.3	204	6.5	9.9
· 건전지 및 축전지	184	24.0	2.0	17	24.9	2.2	45	13.5	2.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407	11.9	100.0	493	-6.3	100.0	1,341	-8.9	100.0
○ 전자부품	4,468	14.6	69.7	347	-6.8	70.3	940	-7.8	70.1
- 반도체	3,626	19.4	56.6	284	-5.7	57.6	763	-6.9	56.9
- 디스플레이 패널	338	-18.4	5.3	28	-11.5	5.6	80	-11.4	5.9
- 전자관	2	1.9	0.0	0	-9.1	0.0	0	-8.8	0.0
- 수동부품	178	29.8	2.8	12	-15.6	2.3	32	-12.6	2.4
- PCB	124	7.1	1.9	8	-3.7	1.6	23	-13.2	1.7
- 접속부품	195	4.2	3.0	15	-10.7	3.0	41	-9.8	3.0
- 기타 전자부품	6	-4.8	0.1	0	-14.9	0.1	1	-16.0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35	14.4	6.8	33	-4.6	6.8	95	-2.2	7.1
- 컴퓨터	47	17.4	0.7	3	-29.2	0.6	8	-18.9	0.6
- 주변기기	388	14.1	6.1	31	-1.5	6.2	87	-0.2	6.5
· 디스플레이장치	6	37.0	0.1	1	12.1	0.1	2	42.7	0.1
· 프린터(부품포함)	72	4.1	1.1	6	-2.3	1.2	16	-4.0	1.2
· 보조기억장치	225	22.3	3.5	18	-2.7	3.6	49	-0.2	3.7
· 저장 매체	45	-1.7	0.7	3	-3.6	0.6	10	-11.5	0.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8.9	0.6	3	7.2	0.7	10	16.2	0.7
○ 통신 및 방송기기	546	1.5	8.5	32	-6.8	6.5	94	-26.0	7.0
- 통신기기	500	2.3	7.8	30	-4.2	6.0	85	-26.5	6.4
· 유선통신기기	62	8.1	1.0	5	1.9	1.0	14	0.9	1.0
· 무선통신기기	439	1.5	6.8	25	-5.3	5.1	71	-30.2	5.3
- 방송국용 기기	45	-5.6	0.7	2	-31.1	0.5	9	-20.3	0.6
○ 영상 및 음향기기	178	-1.7	2.8	11	-2.3	2.3	30	-28.8	2.2
- 영상기기	125	-0.2	2.0	7	-7.1	1.5	19	-35.5	1.4
- 음향기기	50	-2.1	0.8	4	3.4	0.7	10	-13.9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33.8	0.1	0	66.2	0.1	1	12.3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780	7.1	12.2	70	-5.3	14.1	182	-2.3	13.6
- 가정용 기기	179	13.1	2.8	15	-3.5	3.1	40	0.7	3.0
- 사무용 기기	6	-15.9	0.1	0	-18.6	0.1	1	-16.9	0.1
- 의료용 기기	90	3.0	1.4	10	0.6	1.9	23	1.8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6	4.2	4.9	29	-9.9	5.9	76	-4.0	5.7
- 전기 장비	189	9.5	3.0	15	-0.9	3.1	42	-3.4	3.1
· 건전지 및 축전지	74	13.4	1.1	6	4.0	1.2	16	-3.3	1.2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717	3.2	100.0	241	-0.1	100.0	666	0.8	100.0
○ 전자부품	890	4.6	32.8	76	-0.5	31.7	220	2.3	33.1
- 반도체	645	3.9	23.8	55	0.1	22.9	162	4.9	24.3
- 디스플레이 패널	33	7.6	1.2	3	9.8	1.3	8	1.0	1.2
- 전자관	3	1.4	0.1	0	7.0	0.1	1	-2.6	0.1
- 수동부품	37	18.3	1.3	3	-4.6	1.3	9	-1.9	1.3
- PCB	16	-8.9	0.6	1	-21.0	0.5	3	-20.5	0.5
- 접속부품	153	5.6	5.6	13	0.5	5.6	37	-3.0	5.6
- 기타 전자부품	3	21.8	0.1	0	-58.8	0.1	1	-37.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76	5.7	13.8	33	-6.9	13.6	92	-0.6	13.9
- 컴퓨터	156	6.4	5.7	14	-6.0	5.6	38	2.1	5.7
- 주변기기	220	5.2	8.1	19	-7.4	8.0	55	-2.3	8.2
· 디스플레이장치	18	3.0	0.7	2	-8.3	0.6	4	1.5	0.7
· 프린터(부품포함)	45	0.8	1.7	4	-6.2	1.7	12	3.2	1.8
· 보조기억장치	61	2.3	2.2	5	-20.4	2.1	14	-15.1	2.1
· 저장 매체	47	14.9	1.7	4	-3.8	1.6	11	-2.6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0	5.3	1.8	5	6.1	2.0	14	8.1	2.1
○ 통신 및 방송기기	397	-4.7	14.6	34	-1.7	14.3	95	-3.1	14.2
- 통신기기	364	-4.3	13.4	32	-0.6	13.1	87	-2.0	13.1
· 유선통신기기	191	0.9	7.0	17	-4.2	6.9	44	-4.0	6.6
· 무선통신기기	173	-9.5	6.4	15	3.6	6.2	43	0.3	6.5
- 방송국용 기기	33	-8.6	1.2	3	-12.2	1.2	7	-14.7	1.1
○ 영상 및 음향기기	109	-4.2	4.0	8	-6.6	3.4	24	-8.6	3.5
- 영상기기	50	-3.0	1.9	4	-7.4	1.6	11	-5.3	1.7
- 음향기기	42	-3.8	1.6	4	0.9	1.5	10	-7.3	1.5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8.5	0.6	1	-26.5	0.4	3	-23.7	0.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45	5.5	34.8	89	4.4	37.0	235	2.5	35.3
- 가정용 기기	133	4.3	4.9	12	2.2	4.9	32	0.5	4.8
- 사무용 기기	12	-4.5	0.4	1	-7.9	0.4	3	-8.7	0.4
- 의료용 기기	257	5.2	9.5	25	7.2	10.6	66	4.4	9.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5	7.5	11.2	29	3.7	12.1	76	3.1	11.4
- 전기 장비	238	4.5	8.8	22	4.2	8.9	59	1.4	8.9
· 건전지 및 축전지	53	7.8	1.9	4	-2.7	1.8	13	-2.3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427	4.7	100.0	410	-5.9	100.0	1,184	-4.6	100.0
○ 전자부품	961	7.6	17.7	76	-3.3	18.5	209	-9.7	17.7
- 반도체	728	7.1	13.4	57	-3.6	13.9	154	-12.1	13.0
- 디스플레이 패널	32	11.7	0.6	2	-19.1	0.6	7	-15.0	0.6
- 전자관	3	8.8	0.0	0	17.6	0.1	1	-0.8	0.0
- 수동부품	38	21.0	0.7	3	12.3	0.8	10	10.0	0.8
- PCB	21	5.3	0.4	2	-5.0	0.4	5	-5.0	0.4
- 접속부품	133	5.8	2.5	11	-2.2	2.7	32	-1.7	2.7
- 기타 전자부품	6	29.0	0.1	0	1.8	0.1	1	2.9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81	7.4	23.6	95	-5.3	23.2	272	-1.9	23.0
- 컴퓨터	759	12.1	14.0	56	-1.3	13.7	159	1.0	13.5
- 주변기기	521	1.2	9.6	39	-10.6	9.5	113	-5.8	9.5
· 디스플레이장치	88	-0.2	1.6	7	12.2	1.7	21	7.3	1.8
· 프린터(부품포함)	154	-2.0	2.8	12	-2.2	2.9	36	-1.1	3.0
· 보조기억장치	93	-5.6	1.7	5	-42.2	1.3	16	-33.3	1.3
· 저장 매체	113	6.2	2.1	9	-9.9	2.3	25	0.9	2.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4	13.1	1.4	5	-5.0	1.3	16	-2.4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261	-2.8	23.2	93	-16.6	22.7	267	-10.7	22.6
- 통신기기	1,148	-2.7	21.2	86	-16.8	21.0	244	-11.0	20.6
· 유선통신기기	505	-1.0	9.3	31	-22.8	7.6	90	-21.7	7.6
· 무선통신기기	643	-3.9	11.9	55	-12.9	13.3	154	-3.4	13.0
- 방송국용 기기	113	-4.3	2.1	7	-14.6	1.8	23	-7.6	1.9
○ 영상 및 음향기기	353	0.3	6.5	22	4.1	5.3	68	-0.8	5.8
- 영상기기	183	-2.9	3.4	13	18.9	3.1	40	18.9	3.4
- 음향기기	103	-2.8	1.9	7	-0.3	1.7	22	-1.2	1.9
- 기타 영상음향기기	67	16.9	1.2	2	-35.5	0.5	6	-53.8	0.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72	8.6	29.0	124	0.0	30.3	367	0.9	31.0
- 가정용 기기	404	8.9	7.4	30	-4.3	7.2	89	-2.0	7.5
- 사무용 기기	27	4.2	0.5	2	14.2	0.6	7	16.6	0.6
- 의료용 기기	285	9.1	5.3	25	7.9	6.2	71	5.4	6.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2	5.7	5.4	25	-1.0	6.1	69	-1.2	5.9
- 전기 장비	565	9.9	10.4	42	-1.3	10.3	132	1.2	11.1
· 건전지 및 축전지	90	12.2	1.7	7	0.0	1.7	22	4.7	1.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63,159	1.6	100.0	13,361	-6.1	100.0	35,649	-6.8	100.0
○ 전자부품	81,745	1.9	50.1	6,380	-6.2	47.8	17,423	-7.5	48.9
- 반도체	47,209	4.7	28.9	3,665	-6.2	27.4	10,178	-6.1	28.6
- 디스플레이 패널	9,043	-15.4	5.5	617	-26.5	4.6	1,701	-23.7	4.8
- 전자관	277	5.7	0.2	27	5.3	0.2	65	0.0	0.2
- 수동부품	8,840	12.3	5.4	762	14.9	5.7	2,066	8.9	5.8
- PCB	3,430	18.4	2.1	242	5.5	1.8	632	-9.4	1.8
- 접속부품	12,171	-3.5	7.5	1,006	-5.9	7.5	2,611	-10.7	7.3
- 기타 전자부품	774	1.8	0.5	62	-10.7	0.5	169	-6.3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841	-2.9	9.1	1,302	-1.1	9.7	3,532	-2.3	9.9
- 컴퓨터	977	-1.6	0.6	101	16.0	0.8	258	2.8	0.7
- 주변기기	13,864	-3.0	8.5	1,201	-2.3	9.0	3,274	-2.6	9.2
· 디스플레이장치	846	11.0	0.5	103	25.9	0.8	263	35.2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80	-2.8	6.2	836	-4.4	6.3	2,357	-5.1	6.6
· 보조기억장치	410	-26.7	0.3	47	-16.2	0.3	105	2.6	0.3
· 저장 매체	1,799	-6.3	1.1	161	-1.8	1.2	402	-7.8	1.1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28	9.2	0.4	55	2.5	0.4	146	-0.1	0.4
○ 통신 및 방송기기	9,369	-14.8	5.7	668	-20.5	5.0	1,846	-21.2	5.2
- 통신기기	5,787	-18.6	3.5	427	-16.4	3.2	1,164	-21.5	3.3
· 유선통신기기	1,348	-9.6	0.8	127	-18.0	1.0	340	-14.8	1.0
· 무선통신기기	4,439	-21.0	2.7	300	-15.7	2.2	823	-23.9	2.3
- 방송국용 기기	3,582	-7.7	2.2	241	-27.0	1.8	682	-20.6	1.9
○ 영상 및 음향기기	5,803	9.6	3.6	305	-24.1	2.3	904	-21.1	2.5
- 영상기기	2,686	-13.3	1.6	185	-19.4	1.4	517	-16.6	1.4
- 음향기기	530	9.2	0.3	46	-3.0	0.3	114	-5.8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588	51.2	1.6	74	-40.7	0.6	273	-32.6	0.8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1,400	5.1	31.5	4,706	-3.3	35.2	11,943	-3.0	33.5
- 가정용 기기	10,531	0.8	6.5	1,010	-4.7	7.6	2,419	-3.3	6.8
- 사무용 기기	479	-11.3	0.3	41	0.3	0.3	113	1.5	0.3
- 의료용 기기	6,148	5.6	3.8	576	-2.3	4.3	1,457	-5.4	4.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0,478	7.2	12.6	1,887	-0.2	14.1	4,871	0.8	13.7
- 전기 장비	13,764	6.1	8.4	1,191	-7.3	8.9	3,083	-7.2	8.6
· 건전지 및 축전지	7,138	9.0	4.4	603	-3.3	4.5	1,595	-5.7	4.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18년			2019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1~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4,532	2.1	100.0	12,676	3.5	100.0	38,268	0.2	100.0
○ 전자부품	41,768	0.6	27.0	3,352	0.1	26.4	9,560	-4.6	25.0
- 반도체	32,349	1.7	20.9	2,607	0.3	20.6	7,414	-3.9	19.4
- 디스플레이 패널	1,664	-7.1	1.1	130	-0.3	1.0	363	-9.5	0.9
- 전자관	118	-26.2	0.1	8	21.4	0.1	24	-8.5	0.1
- 수동부품	1,352	3.0	0.9	115	11.4	0.9	328	4.2	0.9
- PCB	1,400	-13.4	0.9	110	-4.0	0.9	320	-9.5	0.8
- 접속부품	4,390	0.5	2.8	342	-3.5	2.7	989	-8.6	2.6
- 기타 전자부품	494	5.5	0.3	39	-3.8	0.3	121	0.8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468	1.7	15.2	2,309	3.0	18.2	6,543	2.5	17.1
- 컴퓨터	13,085	1.2	8.5	1,345	-1.1	10.6	3,842	5.2	10.0
- 주변기기	10,383	2.2	6.7	964	9.5	7.6	2,701	-1.1	7.1
· 디스플레이장치	511	-4.9	0.3	47	12.8	0.4	145	5.8	0.4
· 프린터(부품포함)	4,171	-1.6	2.7	363	6.4	2.9	1,073	-1.9	2.8
· 보조기억장치	2,725	9.0	1.8	261	4.1	2.1	701	-2.4	1.8
· 저장 매체	1,625	-1.8	1.1	139	-0.9	1.1	387	-12.2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351	10.0	0.9	154	44.7	1.2	395	15.3	1.0
○ 통신 및 방송기기	33,641	0.4	21.8	2,094	-9.6	16.5	7,887	-4.9	20.6
- 통신기기	31,189	-0.4	20.2	1,871	-11.2	14.8	7,268	-5.5	19.0
· 유선통신기기	6,536	-1.2	4.2	588	13.7	4.6	1,776	14.4	4.6
· 무선통신기기	24,654	-0.2	16.0	1,283	-19.3	10.1	5,492	-10.5	14.4
- 방송국용 기기	2,452	12.7	1.6	224	6.2	1.8	619	2.0	1.6
○ 영상 및 음향기기	11,593	-0.2	7.5	893	13.4	7.0	2,802	6.2	7.3
- 영상기기	6,310	-0.4	4.1	596	28.4	4.7	1,747	17.1	4.6
- 음향기기	3,042	11.7	2.0	256	19.4	2.0	768	9.6	2.0
- 기타 영상음향기기	2,241	-12.4	1.5	41	-62.7	0.3	287	-35.7	0.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4,062	6.0	28.5	4,028	13.5	31.8	11,476	5.7	30.0
- 가정용 기기	12,772	2.4	8.3	1,167	15.1	9.2	3,249	6.4	8.5
- 사무용 기기	912	-0.5	0.6	81	9.1	0.6	259	-9.7	0.7
- 의료용 기기	6,942	3.2	4.5	697	16.3	5.5	1,936	11.1	5.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925	9.1	6.4	917	4.1	7.2	2,572	2.4	6.7
- 전기 장비	13,512	9.3	8.7	1,165	19.1	9.2	3,459	6.0	9.0
· 건전지 및 축전지	2,081	17.6	1.3	192	21.6	1.5	603	17.5	1.6

자료 : Uncomtrade, KITA



##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6	14,334	6.6	66,618	15.9	1,016	-56.1	
	2017	8,829	-38.4	75,141	12.8	614	-39.6	
	2018	6,872	-22.2	99,226	32.1	1,344	118.9	
	2016.1/4	4,211	45.1	16,916	26.2	418	-48.2	
	2/4	3,693	36.9	16,176	19.1	303	-37.4	
	3/4	3,160	-16.9	15,681	22.0	150	-74.6	
	4/4	3,270	-19.2	17,845	1.3	145	-66.6	
	2017.1/4	2,610	-38.0	18,617	10.1	116	-72.2	
	2/4	2,043	-44.7	15,715	-2.8	84	-72.3	
	3/4	2,018	-36.1	19,113	21.9	98	-34.7	
	4/4	2,158	-34.0	21,696	21.6	316	117.9	
	2018.1/4	2,042	-21.8	25,635	37.7	244	110.3	
	2/4	1,485	-27.3	28,160	79.2	379	351.2	
	3/4	1,554	-23.0	27,358	43.1	313	219.4	
	4/4	1,791	-17.0	18,073	-16.7	408	29.1	
	2019.1/4p	1,628	-20.3	20,666	-19.4	150	-38.5	
	직접구매 (수입)	2016	44,198	2.2	192,102	37.2	5,153	4.8
		2017	37,898	-14.3	277,273	44.3	8,737	69.6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6.1/4		12,454	9.2	37,280	17.6	1,302	3.8	
2/4		8,907	-15.8	35,107	22.1	996	-2.2	
3/4		10,499	28.8	44,531	52.8	1,093	-6.7	
4/4		12,338	-5.9	75,184	49.2	1,762	19.7	
2017.1/4		7,123	-42.8	57,502	54.2	1,879	44.3	
2/4		6,799	-23.7	56,726	61.6	1,870	87.8	
3/4		10,035	-4.4	55,514	24.7	1,879	71.9	
4/4		13,941	13.0	107,531	43.0	3,109	76.4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p		13,180	5.2	141,629	38.6	3,107	8.5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18.1월	185.5	155.1	85.0	89.1	118.8	132.3	168.4	176.7	63.7	64.3	125.1	139.5
2월	171.6	144.0	69.1	73.6	85.7	94.1	165.8	176.6	48.0	50.1	104.7	117.3
3월	207.8	175.7	81.2	88.3	104.5	114.2	189.1	202.3	62.2	73.1	132.6	147.8
4월	187.7	158.6	73.3	81.2	99.2	108.4	134.6	144.1	50.6	60.2	133.3	147.8
<b>5월</b>	<b>208.0</b>	<b>176.8</b>	<b>72.7</b>	<b>83.8</b>	<b>99.8</b>	<b>102.2</b>	<b>141.3</b>	<b>156.2</b>	<b>62.1</b>	<b>69.2</b>	<b>126.9</b>	<b>142.2</b>
6월	214.9	184.8	74.6	89.0	102.8	105.7	187.2	213.5	56.7	63.8	147.3	164.8
7월	197.8	170.8	88.7	106.5	119.6	123.3	146.0	168.0	59.3	65.8	130.0	145.3
8월	218.7	190.0	107.6	127.1	118.4	121.8	176.0	204.5	58.3	64.6	155.1	174.0
9월	244.6	215.1	93.6	109.2	104.4	107.9	89.1	101.9	52.2	58.6	143.0	161.1
10월	227.1	208.8	89.8	104.6	116.7	121.9	77.1	88.3	67.6	73.8	170.1	193.2
11월	207.7	194.2	37.4	44.1	112.1	117.4	86.1	99.8	83.3	90.1	148.8	169.0
12월	171.7	162.6	36.9	44.0	95.9	101.2	87.5	102.7	73.6	79.1	136.9	155.6
19.1월	145.1	152.2	36.5	44.3	103.9	109.7	64.2	75.4	72.7	79.0	124.4	141.7
2월	132.7	146.5	29.8	37.2	87.1	91.8	54.3	65.9	60.3	65.3	107.2	119.2
3월	175.5	202.2	31.3	39.3	99.9	105.9	69.2	84.6	67.2	77.6	139.4	154.8
4월	164.3	201.6	31.2	39.3	101.8	109.9	55.0	68.4	71.3	81.7	134.0	153.3
<b>5월</b>	<b>148.5</b>	<b>186.8</b>	<b>30.4</b>	<b>38.9</b>	<b>99.8</b>	<b>108.0</b>	<b>59.9</b>	<b>75.1</b>	<b>62.9</b>	<b>72.0</b>	<b>142.8</b>	<b>163.5</b>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18.1월	112.0	113.2	106.2	124.0	107.5	116.8	194.4	201.3	132.9	141.5	128.4	124.3
2월	100.5	101.6	87.8	104.8	84.6	94.2	133.9	138.5	90.3	96.1	113.6	110.8
3월	115.6	116.8	113.7	138.8	98.1	106.9	160.0	161.5	106.8	115.1	129.2	126.0
4월	108.7	109.7	119.6	147.8	90.1	98.1	149.4	151.4	95.5	109.0	133.8	129.4
<b>5월</b>	<b>105.3</b>	<b>106.2</b>	<b>142.4</b>	<b>183.1</b>	<b>93.7</b>	<b>102.2</b>	<b>146.0</b>	<b>148.3</b>	<b>102.6</b>	<b>117.1</b>	<b>121.0</b>	<b>116.7</b>
6월	109.9	113.8	136.8	181.3	88.8	97.2	137.4	143.2	95.4	109.0	126.7	123.7
7월	118.8	122.9	127.6	171.1	98.3	106.8	143.6	148.7	106.2	129.3	129.1	126.3
8월	116.9	120.9	125.6	166.7	99.4	108.4	133.5	136.0	99.2	120.2	119.6	116.7
9월	111.7	118.2	87.0	114.6	92.2	100.7	108.4	109.9	91.8	111.2	119.2	116.9
10월	127.0	136.1	93.9	125.7	107.1	117.5	126.1	126.2	169.4	205.6	133.6	131.1
11월	132.4	144.2	76.0	99.1	96.2	105.7	115.0	116.5	156.3	172.3	118.8	117.0
12월	124.3	136.9	49.1	60.7	97.5	107.3	139.8	144.4	127.3	138.4	121.7	119.9
19.1월	118.3	134.1	52.4	77.4	95.6	105.5	169.4	169.7	152.6	165.6	111.9	109.8
2월	98.8	114.8	41.6	54.3	70.9	78.0	114.0	117.7	99.1	108.7	95.2	93.3
3월	124.2	145.7	46.7	50.8	95.6	105.0	136.2	139.4	137.7	149.5	116.5	114.4
4월	128.4	153.4	47.0	50.8	91.2	100.4	127.1	131.3	137.1	154.8	127.7	125.7
<b>5월</b>	<b>138.1</b>	<b>170.7</b>	<b>40.7</b>	<b>44.1</b>	<b>88.2</b>	<b>97.5</b>	<b>108.1</b>	<b>112.1</b>	<b>142.3</b>	<b>160.7</b>	<b>113.2</b>	<b>111.1</b>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참여 연구원 : 강희일, 조성선, 정경찬, 최재원, 최규선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34054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